

건연시 Millenion 편 부분 시나리오 스크립트

	23-26	26
브랜든	밀레니온 경마사무실	스위퍼
해리	밀레니온 영업부	씨발해리
마리아	취준생	대기업 비서

----- 집필 필요 부분 -----

1. 레이블 빅 대디

- a. 충격 사건
- b. 칼드웰 아저씨의 회사의 주주총회&애프터 파티라고 들어서 참여했는데 갑자기 충격 사건이 일어나서 마리아 dead / 브랜든 부상
- c. 이번 충격 사건으로 빅 대디가 조직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마리아
- d. 브랜든의 병문안을 가는 마리아
 - i. 해리와 조우
 1. 대화 성공 #truthpoint +1
 2. 대화 실패
- e. 빅 대디와 브랜든과 함께 저택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마리아
- f. 해리에 대한 스토리 추가(인물 설명 등...)

2. 레이블 빅 대디2

- a. 랜디 아저씨에게 은밀히 찾아가 조직 관련 질문, 대답을 들은 후 대디에게 찾아가 사실여부 확인. 랜디 조언으로 칼드웰 아저씨 → 빅대디(대디)로 호칭 변경

3. 레이블 브랜든

- a. 빅 대디의 저택으로 브랜든을 초대하는 마리아
- b. 브랜든과 빅 대디, 마리아 셋이서 하는 식사
 - i. 빅 대디와의 친교
 - ii. 브랜든과의 친교 #brandonpoint +1
- c. 빅 대디의 자선 파티에 브랜든과 참여
- d. 브랜든과의 데이트(구상중...)

4. 레이블 해리

- a. 쉐리와 만나는 이벤트(해리가 쉐리 소개)
- b. 브랜든, 해리, 마리아, 쉐리의 더블 데이트
- c. 브랜든과의 대화
 - i. 해리에 대한 단서 획득 #truthpoint +1
 - ii. 단서 획득 실패

- d. 해리의 수상함을 어필할 수 있는 사건 필요(구상중...)
- 5. 레이블 브랜든2
 - a. 브랜든의 조직 생활
 - i. //if truthpoint > n
 - 1. 마리아를 노린 총격 사건 발생
 - ii. else
 - 1. 브랜든의 직원들에 대한 선행 부분 스토리(원작 내용)
 - b. 빅 대디와 브랜든의 제안으로 총을 배우는 마리아 (truthpoint 일정 이상 시)(gungrave, genocide)
 - i. 총을 배운 순간 해피 엔딩으로 진입 불가
 - ii. 이 때부터 브랜든에게 사격을 배우러 간다 선택지 뚝
 - iii. 사격 일정 점수 이상 시 brandonpoint +1
 - iv. 여기서 brandonpoint를 많이 쌓아놔야 DESPAIR 엔딩 진입 가능(총을 잘싸야 함) 일단 나중에//
- 6. 레이블 쉐리 (#Mil2)
 - a. 해리와 결혼 소식을 전하는 쉐리
 - i. 쉐리의 질문 “브랜든과 마리아 사이는 어때?”
 - 1. 물론 잘나가 #brandonpoint +1
 - 2. 얼버무리기
- 7. 레이블 브랜든3
 - a. //저 중 계속 중간중간 브랜든과의 사격 연습이 있고 점점 사격레벨이 올라가며,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brandonpoint 를 얻을 수 있음
 - b. 해리와 브랜든과 마리아의 3자 독대(존나 위험한 분위기 st)우선 나중에//
- 8. 레이블 브랜든4 (#Mil4)
 - a. 브랜든 소식이 들리지만 좋고나쁜거 둘다 들어서 고심
 - b. 대디가 발렌티나 호텔에서 마리아와 브랜든 만나게 해줌
 - i. 브랜든vs마리아 말싸움
 - 1. 대꾸 o #brandonpoint +1
 - 2. 대꾸 x
- 9. 레이블 빅 대디3 -> 원작엔딩편
 - a. 브랜든과 싸움을 잘 풀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
 - b. 마리아와 빅대디의 감정선 표현
 - c. 일 관련으로 브랜든&해리와 대디 저택에서 식사
- 10. 레이블 해리2
 - a. 대디가 후임자(차기회장) 선택. 근데 해리가 아닌 다른사람
 - i. 해리의 반응은
 - 1. 개의치 않고 축하
 - 2. wtf 표정(하지만 이내 포커페이스 유지)
 - b. 간부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

11. 레이블 브랜든666

- a. 브랜든과 해리가 동시에 연차쓰고 과거여행 간다고 함
- b. 브랜든이 해리에 의해 사망
- c. 장례식을 치르고 대디가 해리에게 의심 표하지만 발림
- d. 마리아 대충격, 대디의 위로로 기운 되찾지만 의구심 품기시작

12. 레이블 해리3

- a. 해리 일당에게 수상함을 느끼는 마리아(truthpoint 일정 이상 시)
- b. 간부들(반 해리)파 모두 사망, 대디 절규
- c. 당선인도 건강악화 빌미로 사퇴, 해리가 회장됨

13. 레이블 빅대디4

- a. 마리아 산통 시작, 딸을 낳고 이름을 미카로 지음
- b. 아이가 커가는 걸 지켜보다가 브랜든 생각

14. 레이블 건그레이브(원작엔딩)

- a. 대디가 못참고 해리한테 쳐들어가지만 살해당함
- b. 아이가 걸음을 시작할 때쯤, 거처를 옮김
- c. 몇년 후 해리 일당에게 발각돼 살해당함

-----밀레니온 분기 / 건그레이브 분기 집필 끝-----

----- Genocide / Despair 부분 집필 시작-----

#레이블 해리3 에서 건너옵니다.

1. 레이블 해리4

- a. 오그맨 단서 발견
- b. 오그맨 조사하기 내용(맵에서 클릭해서 단서 찾기 - 검은방 해보셨나요?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 i. 기회 안에 단서를 잘 찾음 #truthpoint+1
 - ii. 단서를 못 찾음
- c. 해리 뒤 캐기
 - i. 자금이 오그맨에게 어마무시하게 흘러간다는걸 간부에게 들음

2. 레이블 해리5

- a. 오그맨 조사하기 내용(맵에서 클릭해서 단서 찾기 - 검은방 해보셨나요?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 i. 기회 안에 단서를 잘 찾음 #truthpoint+1
 - ii. 단서를 못 찾음
- b.

3. 레이블 토키오카

- a. 그를 설득한다
 - i. 설득성공 — b로
 - ii. 설득실패 — 건엔딩
 - b. 그와 함께 오그맨 연구 시작
 - c. 해리를 만나 그의 계획을 듣고 위험하다 판단, 생각을 굳혀 마리아에게 오그맨 협력 전력으로 시작
4. 레이블 빅대디666
- a. 해리가 마리아의 움직임을 수상쩍게 여겨 마리아를 감시 시작. 해리의 감시를 알아채고 조사를 늦추지만 조사는 해리가 한수 위. 마리아가 들킬 위기.
 - b. 해리가 대디에게 마리아에 대해 캐묻지만 그는 다물고 있다가 살해당함
 - c. 마리아 분노, 오그맨 강화실험 강행, 실험하다 폭주한 오그맨과 전투(지면 게임 오버) x 몇번 발생
 - d. 밥 파운더맥스에게 독 먹여 죽음으로 복수
5. 레이블 제노사이드-
- a. 오그맨 조종 확인해보고 마무리, 완성단계
 - b. 흑시몰라 빼온 브랜든 시체를 쓰러다가 토키오카의 권유로 다시 물어야겠다고 다짐, 그의 묘 앞에서 오열 (아니면 여기에서 선택지 O/X 추가해서 O 나오면 Despair 해도 무방)
 - c. 쓸어죽이기(끝)

#밀레니온 > 마리아가 대체 여기서 어떻게 대디 / 조직에 대해 아는 지에 대한 설명이나 인과 관계가 여태까지 전혀 없음.

여기의 내용을 대디 -> 칼드웰 아저씨 / 패밀리 -> 회사 분들 로 변경하고

총격사건 후 이 상황에 대해 설명받는 이벤트를 추가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대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졸업식 후 마리아가 칼드웰 = 빅 대디, 밀레니온 = 칼드웰

아저씨의 조직 임을 알게 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 브랜든 총상 사건 이후로

랜디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사건 진위를 묻고 난 후 대디에게 찾아가 확인&패밀리답게

대디라고 부르는 것으로. 칼드웰의 회사 = 삼성그룹처럼 대형 계열사 회사 여럿이 모여있는

말그대로 '그룹'경영. 대디는 그 회장(=이건회급)

#빅 대디 01

간략설명: 칼드웰 아저씨의 회사 쪽에서 큰 파티를 열어 패밀리들에게 소개해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랜디 아저씨와 셋이 함께 도착, 다른 패밀리 분들 몇몇 소개받다가 브랜든을 만나 함께 춤을 춘다.(제일 행복한시간) 하지만 잠시 불일이 있다며 나갔던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칼드웰 아저씨는 나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했지만, 일을 할 때의 표정은 회장님다운 근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한 그룹 내의 거대 회사들 여럿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 임원들에게 '패밀리'라는 호칭을 부여해 아저씨는 '그들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인자한 아버지'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거대한 회사의 총괄 책임자답게 하고 있는 일도 꽤나 복잡하고 다양해보여
언제나 바쁜 듯 했기에,
나는 그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내 방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날, 칼드웰 아저씨가 회사 총회 겸 커다란 파티를 할 것이라며 나에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해왔다.

d 오늘 저녁에 큰 손님을 맞이한 뒤에 파티를 할 예정이란다. 괜찮다면 너도 함께 하지
않겠니?

m 네..? 저.. 하지만 저는 아직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d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단다. 이 저택으로 데려왔을 때부터, 넌 우리 패밀리의 일원이 된
것이나 다름없단다.

d 파티를 통해 마리아 너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우리 일원으로서 환영해주고
싶다.

m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d 물론이지.

m 아저씨....

d 그리고, 너의 친구인 브랜든도 올 테니까, 같이 놀면 즐겁지 않겠니?

m! 네. 그렇게 할게요.

d 고맙다. 마리아.

그의 브랜든 언급에 적잖게 놀랐지만 그래도 그를 볼 수 있다 하니 기대가 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그와 함께 도착한 곳은 생전 처음 보는 호화스런 호텔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샹들리에가 천장 가운데를 장식했고, 바닥엔
빈틈없이 깔린 레드 카펫이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급스런 복장을 뽐내며 서로에게 인사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d 난 이제부터 손님을 맞이하러 가 봐야 한단다. 여기에서 편하게 있어주련?

m 네. 알겠어요.

d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 패밀리니까 인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갈
거란다.

d 그리고 졸있으면 그도 올테니 둘이서 즐겁게 춤추거라.

m 앗, 아저씨도 참...

칼드웰 아저씨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난 앉아서 기다리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고급스런 의상에 색색깔 영롱한 빛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이 공간과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m 그에 비해 나는...

전날 칼드웰 아저씨와 함께 대형 백화점에 가서 어울릴 만한 드레스를 골라 오긴 했지만,
웬지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듯 너무 어색해서 괜히 창피하기만 하다.

한숨을 쉬며 구경만 하던 중, 말을 걸어오는 영애 분들이 있어 그들과 인사를 나눴다.

l(lady)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건가요?

m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아 라고 해요.

l2 아아, 대디의 저택에 새로 들어왔다는 아가씨구나, 어쩔 곱기도 하지~

l 잘 부탁해요—

m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배운 인사법을 떠올려 인사를 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다.

l2 어머, 그 인사는...

m 네...? 무슨 문제라도?

l 그건 사실, 춤을 출 때 상대방 신사 분에게 건네는 인사예요. 커티시(courtesy) 라고 부르죠.

m 앗...!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이런, 너무 긴장한 탓에,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다.

실례를 범했던 생각에 너무도 창피해져, 얼굴이 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자, 그녀들은 웃으며 위로와 함께 칭찬을 해주었다.

l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 할 수도 있죠.

l2 그나저나 자세가 정말 완벽한데요— 처음 오신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m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실,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l 역시~ 대디의 자제 분은 다르다니깐.

l2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말을 끝내며, 그녀들은 제대로 된 예식 인사를 해주었다.

그녀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 마음 속에서 따스한 온기가 생겨났다.

칼드웰 아저씨의 ‘패밀리’에 들어온 것을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다른 영애 분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혹시나 그가 오지 않을까 하고 둘러보다가 익숙한 모습이 보여 눈을 돌려보니, 무려 정장 차림의 브랜든이 들어오고 있었다.

언제나 입고 다니던 조끼 차림이 아니라, 게다가 정장이라니 —

웃이 날개라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오늘 실감하게 되었다.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날 찾는 것 같기에, 바로 그를 불렀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바로 몸을 돌려 나에게 오고, 서로 인사를 나눴다.

m 꽤 잘 어울린다~

m 음..근데 머리는 어떨지....

b ...?

그는 머리를 매만지는데, 그런 그가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다.

m 후훗, 농담이야.

미소를 지으니 그도 같이 웃어주었다.

m 중앙으로 가자.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으니 같이 춤추자.

b 나...나는...

m 괜찮아. 내가 가르쳐줄테니까-

그의 팔에 팔짱을 끼고, 홀의 중앙으로 가서 춤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지금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분이다.
언제까지고 그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춤을 추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져 나와 브랜든은 근처 의자에 앉기로 했다.
그러다 브랜든이 긴장했는지 화장실에 갔다온다고 하여 난 웃으며 그를 보내주었다.

패밀리 몇 분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브랜든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술술 초조해진 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menu:

어떻게 할까?

“그를 찾아 나선다” #overpoint(게임오버)

일행들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 나는 브랜든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jump seek

“암전히 더 기다린다.”

하긴, 그는 어린애도 아닌데. 내가 직접 찾으러 다니는 건 좀

너무한가..?

jump not_seek

label seek :

m “브랜든, 이 곳이 처음이라서 길을 잃었을 지도 몰라. 얼른 데려와야겠다.”

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브랜든을 찾아 나왔다.

그는 화장실에 간다고 했으니까, 우선 남자화장실 근처에서 브랜든이 있나 살펴보았다.

하지만 브랜든과 닮은 사람은 전혀 없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다른 곳을 찾아 나설까 하는 사이, 어딘가에서 총성이 들렸다.

탕!

m “....!!”

m “방금, 뭐지..?”

맞다, 이 곳은 성대한 연회장이기도 하지만, 대디가 일 관련으로 나온 곳이기도 하다.

대디는 거대 회사의 우두머리니까, 그가 직접 오는 이 기회를 노리고 찾아오는 적이 반드시
있을 터.

뿐만 아니라 브랜든도 밀레니온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브랜든이 방금 소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다급하게 총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만의 하나일 테지만, 브랜든이 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면 난... 난.....

계단을 올라서서 복도에 도달하자, 엘리베이터 근처에 사람 두어 명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브랜든은 있지 않았다.

안심하고 뒤로 돌아선 찰나, 총을 들고 있는 남자가 근처에서 날 발견하고 이 곳으로 오고 있었다.

그의 총구는 날 겨누고 있었다.

e(enemy) “넌 누구냐?!”

m “아니 전...”

나에게 총이 없다는 것을 짐작했는지 총을 살짝 내리고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이내 다시 나에게 겨누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e “제길, 이 광경을 보아버린 이상, 네가 누구인지는 알 바가 아니지. 미안하지만 너도 같이 죽어줘야겠다.”

m “...?!?”

갑자기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 협박을 하며 다가오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긴장으로 몸이 굳어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거의 동시에, 브랜든이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이 곳으로 왔다.

b “마리아!”

m “브랜든..? 브랜든! 어떻게 여기에.. 것보다 왜이렇게 늦은 거야?”

b “미안, 칼드웰 님에게 불러가서 보고하다가..”

철컹.

총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렸다.

총을 든 남자는 이번엔 총구를 브랜든에게 돌리며 말을 걸었다.

e 넌 또 뭐냐!

b ...!

브랜든은 곧바로 총을 들어 전투 태세를 취했지만, 남자는 곧바로 총을 쏠 기세였다.

m 브랜든..! 안 돼!

난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의 앞을 막았지만, 그의 총에선 결국 화약 내음과 함께 총성이 나오고 말았다.

타앙-!

b ...!! 마리아! 안 돼!!

그가 쏜 총알은 나의 명치를 관통한 뒤,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다.

브랜든은 바로 나에게로 달려가 내 상체를 일으켜세우다가, 또다시 철컹 하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소리의 주인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들고 있던 총으로 재빨리 그를 쏘버렸다.
동시에, 장전을 마친 남자도 브랜든을 향해 총을 쏘았다.

탕탕!

총을 쏜 건 브랜든이 더 빨랐다.
총을 쏘는 동시에 그의 총을 피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치진 않고 왼쪽 어깨 옷깃에 총알이 스친 자국만 생겼다.
남자는 쓰러졌고, 브랜든은 날 부둥켜안은 채 나의 총상을 지혈하며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b “마리아, 마리아!”
m “.....”
b “마리아, 눈 좀 떠봐..!”
m “....브랜...든...”
b “응 마리아,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m “.....다행..이다..”
b “마리아...”
m “다치지..않아..서....”
b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내가 널 구했어야 하는 건데, 왜 그런...”
m “다행...오.....”
b “..?! 마리아? 정신차려 마리아! 마리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난 그가 무사한 지를 보려고 애썼고 그에게 상처가 없는 걸 확인한 뒤 안심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그렇게 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브랜든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퍼졌다.

- 게임오버 -

label not_seek :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일행들과 대화를 하다가 몇 분 후, 갑자기 스산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m?!

하지만, 브랜든은 오지 않았고, 그 외의 변화는 없었다.

m 기분 탓이려나...?

다시 고개를 돌려 대화로 돌아갔지만, 마음 속의 초조함은 유지된 채였다.
몇 분 후, 일행들이 돌아가고, 홀에 우두커니 서서 브랜든을 기다리는데, 랜디 아저씨가 이 쪽으로 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r(randy) 마리아 씨, 큰일입니다.

m 랜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r 윗층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마리아 씨를 저택으로 모시라는 회장님의 명입니다.

m 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게다가 브랜든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r 이 곳은 위험합니다. 우선 저택으로 돌아가신 뒤에 기다리도록 하죠.

m 네.. 알겠어요.

랜디 아저씨의 호위를 받으며 저택으로 긴급 회피하게 된 나는, 잠전에 느꼈던 초조함이 이것이었나 생각하게 되었다.

브랜든,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몇 분 후, 곧이어 칼드웰 아저씨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매우 심각한 얼굴로, 저택 내의 부하들에게 여러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난 그에게 브랜든의 위치를 물어보고자 했다.

m 아저씨, 오셨어요.

d 오오 마리아,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m 저.. 혹시 오시다가 브랜든을 본 적 없으신가요? 저랑 같이 있다가 볼 일 보러 간다고 한 후에 오지 않았거든요.

d 음... 마리아. 그게 말이다..

어쩐지 그의 대답이 심상치 않다.

다시 한 번 그에게 물어보았다.

m 아저씨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브랜든이 어디에 있는 지 알려주세요.

d 브랜든은 말이다... 지금 병원에 있단다.

m 네..?! 병원이요?

d 그는 날 지키려다가 그만, 총상을 입고 말았단다. 급한대로 응급실로 옮기긴 했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모르겠다.

m 세상에.. 그럴 수가....

d 미안하다 마리아. 이런 사태를 대비해 경호원을 더욱 배치했어야 하는데..

브랜든이 다쳤다니, 게다가 총상이라니.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에 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d ...?! 마리아! 괜찮니??

m ...브랜든... 브랜든.....

방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아저씨에게 다시 한 번 찾아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의사의 전화를 기다렸다.

몇 시간이나 흘렀지만,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칼드웰 아저씨는 나에게 들어가기를 권유했지만 난 거절했다.

d 마리아, 시간이 너무 늦었다. 솔솔 방에 들어가 쉬는 게 어떨겠니?

m 괜찮아요 아저씨. 전 좀 더 기다릴게요.

d 이러다간 네 몸이 상하게 돼. 전화가 오는 대로 내가 알려줄 테니, 마리아 넌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거라.

m 하지만.. 전 지금 잠이 전혀 오지 않아요. 브랜든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 지 생각하면...

.....

d 마리아...

m 죄송해요.. 하지만,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d ...그래. 같이 기다리자꾸나.

m 감사해요 아저씨.

기다리다가 결국 밤을 새버렸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어두웠던 거실에 햇빛이 비쳐오자, 점점 졸음이 나의 눈꺼풀을 짓누르고, 고개는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기를 몇 번, 눈이 완전히 감기려던 찰나 전화기가 울렸다.

순간 잠은 씻은 듯이 달아나고, 나의 온 신경은 전화기를 향해 집중되었다.

칼드웰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고, 난 귀를 기울여 오직 전화 내용을 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d ...알겠네.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그를 보며, 난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m 아저씨, 브랜든의 상태는요?

d

m 어서 말해주세요..!

d 브랜든은.. 무사하다고 한다. 방금 응급 치료를 끝냈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구나.

m 하아...

브랜든이 무사하다는 그의 말에, 극에 달했던 긴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다.

m 다행이다... 브랜든..

d 마리아..?!

m 아저씨.. 감사해요...

d 마리아..! 정신차려라 마리아!

밤새 초조해하며 기다려 피로가 쌓인 탓인지,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그러다 결국. 소파 위에서 쓰러져버렸다.

칼드웰 아저씨의 외침을 들으며, 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히어로집필---

label big_daddy01:

#충격 사건으로 조직에 대해 알게 되는 마리아

잠에서 깬 것은, 해가 뜬 지 훨씬 지난 오후에 다다라서였다.
너무도 지쳐있었던 탓일까, 부스스하게 몸을 일으켜 시계를 바라보니 벌써 3시경이 다
되어갔다.

...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갑자기 들이닥친 그 괴한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조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칼드웰 아저씨를 죽이러 온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 나와 브랜든은 무슨 일에 휘말려버리고 만 것일까?

칼드웰 아저씨에게 여쭙 봐야만 한다.

m 아저씨께.....전화를 드려야만 해.

몇 번의 통화음이 울렸을까,
랜디 씨께서 전화를 받았다.

랜디 씨는, 칼드웰 아저씨의 비서로서, 나를 데리러 찾아와주신 분 중 하나기도 했다.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을 때, 정말로 바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직접 받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데.

I 여보세요, 마리아 아가씨. 안녕하세요.

m 랜디 씨, 안녕하세요...

m 칼드웰...아저씨는? 지금 통화할 수 없을까요.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I

I 마리아 아가씨.

I 「밀레니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 「밀레니온」...?

1. 내가 이 동네로 이사온 후 분명 들어본 이름이다. 「밀레니온」

2. 「밀레니온」이라는 곳은 처음 듣는다.

I 「밀레니온」이란 조직, 조직은 곧 세계입니다. 마리아 아가씨, 진실을 말해 드릴 때가
되었군요. 여태까지 숨겨와서 죄송합니다.

I 전화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지만. 빅 대디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아가씨.
빅 대디는, 칼드웰 아사기는, 「밀레니온」의 보스. 패밀리의 수장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I 다시 말하죠, 당신을 보살펴 온 40대 후반의 노신사는, 마피아의 보스라는 겁니다. 저희는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죠.

아니야.

I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지도 모르겠으나, 마리아 아가씨, 당신의 삼촌 또한 패밀리였습니다.
패밀리끼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패밀리는 누구라도 돕습니다. 그것이 빅 대디의 방식.
당신의 삼촌은 빅 대디와 처음 밀레니온을 키워나갈 시절부터 있던 인재였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I 아마 삼촌에게서, 대디 — 아니 칼드웰 씨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겠죠.

I 상냥한 분들입니다. 평범히 살아가게 하고 싶었겠지요.

I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아가씨도 이미 패밀리의 일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죠.

평소의 조용한 톤으로 말을 이어나가는 랜디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다.

칼드웰 아저씨가 마피아의 보스라니.

삼촌도, 그 패밀리의 한 명이었다니...

m

m 칼드웰 아저씨를 만나게 해 줘요.

우선은, 아저씨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순 없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 된 이상.

브랜든은....

바로 나 때문에 다친 것이다.

나와 아저씨를 감싸기 위해 자신이 대신 총을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브랜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친구의 목숨을, 나 때문에 잃을 뻔 한 것이다.

m 칼드웰 아저씨가 오시면 연락 해 주세요.

I알겠습니다, 아가씨.

전화를 끊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언제 다시 괴한이 들어닥칠 지 모른다. 다음엔 아저씨가 아닌 나를 노릴 지도 모른다.

또다시 브랜든이 다칠 지 모른다.

다시 나의 가족을 잃는 경험은...

m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차가운 듯한 물로 몸을 마지막으로 헹구고, 결연한 마음을 다지고 방으로 걸어 나왔다.

전화기에 착신된 메시지로, 칼드웰 아저씨가 저녁이 되기 전 본가로 돌아올 거라는 랜디

아저씨의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다.

나는 옷을 챙겨입고, 칼드웰 저택의 본가로 향했다.

칼드웰 저택은 아주 넓다.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성 같아 보인다.

처음 이 곳으로 칼드웰 아저씨와 함께 왔을 때, 사실 놀랐다. 무슨 영주인 줄 알았다.

부담스러워하는 나를 위해 아저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신식 집을 한 채 내주셨다.

이 집도 내겐 과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넓직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원을 걸어 들어가, 칼드웰 아저씨가 계시는 본가를 향했다.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다.
그 옆에는, 랜디 씨가 서 계셨다.

d 왔는가, 마리아....

d

d 먼저, 미안하다.

아무래도, 랜디 아저씨에게서 들은 말은 사실인 모양이다.
사실은 몇 번을 오면서도 고민했다. 랜디 아저씨는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알고 있던 것과 다름없다.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대체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

이렇게나 부자라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 볼 수 밖에 없었다. 어린 내게
아저씨는 항상 하는 일에 대해 두루뭉술 둘러 말하셨고, 무슨 회사에서 일하는지도 숨기셨다.
유명한 회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대 봐도 가만히 고개를 저으셨을 뿐이다.

m

m 칼드웰 아저씨.

m 저, 랜디 아저씨에게 들었어요.

m 아저씨, 저는... 저는 물어야만 해요. 아저씨. 아저씨는.... 정말로, 마피아인가요.

m 제 삼촌은....

m 삼촌도, 마피아셨던 건가요?

마피아.

그 마피아 때문에 삼촌은 살해당하셨다.

그런 내가, 마피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리가 없다.

어제 우리를 습격한 괴한도....마피아인가.

I 마리아 아가씨, 삼촌 분은...

m 랜디 씨, 미안해요. 저... 칼드웰 아저씨께 직접 듣고 싶어요.

d ...랜디, 잠깐 자리를 비켜 주지 않겠는가. 마리아... 괜찮다면, 자리에...

m 괜찮으니까 말 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과거편에 삼촌의 죽음과 그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어쩌고~~~ 적자.

*그 때 나를 데리러 온 랜디 씨와 칼드웰 아저씨에 대해서도 적자.

삼촌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은 왠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물론, 내가 살던 마을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긴 했다. 불량배들과, 마피아 꼬나풀들이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폭력과 절도 사건. 그래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지
않을거라고 믿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믿었다.

d 마리아, 너의 삼촌은... 나의 오래된 친구였단다.

칼드웰 씨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말을 이으셨다.

d 오래된 친구이자, 밀레니온, 패밀리 초기 멤버지. 밀레니온은.... 마피아 조직이다. 아마, 이 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이라고 자신한다.

d너와 네 친구를 끌어들이려는 생각은 정말 없었다.

d 네 삼촌은, 전부터 실력이 좋았지. 그렇지만, 마피아로서 사는 것에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었다... 너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그는 패밀리를 그만뒀다.

d 그래서 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야.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네로 가라고 했는데도, 강경하게 거부하더구나. 그 동네가 전에 사랑하던 여자가 살던 곳이라고 했어.

d 그런 친구였다, 네 삼촌은. 그래서 그에게 집을 얻어 주고, 나는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다.

m ...그건, 아저씨 탓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고였어요.

d 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식으로 마피아의 손에 죽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리아라도 거기서 벗어났으면 했던 것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m 칼드웰 아저씨...

아저씨는 내게 삼촌의 얘기를 하다가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 맺히기 시작하셨다.

나도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삼촌은 마피아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싶어 하셨던 모양이다. 그 반증으로 나를 길러 주신 거겠지.

마피아 일을 하면 돈과 권력쯤은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칼드웰 아저씨와 비등한 자리에 계실 수 있었을 텐데도 나를 선택한 것이다.

칼드웰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삼촌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맡아주시기로 한 것이다.

칼드웰 아저씨가 잘못된 것은, 없다.

m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m 자, 말씀해 주세요. 밀레니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d 마리아....

d 들으면, 마리아는 내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m 칼드웰 아저씨가 마피아라고 해서, 여태까지의 칼드웰 아저씨가 사라지는 건 아닌걸.

m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칼드웰 씨...

눈물을 삼키고 칼드웰 씨에게 내 결연한 의지를 전했다.

칼드웰 아저씨는 슬픈 눈으로 나를 보며 웃어 보이셨다.

나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신 분이시다. 칼드웰 아저씨가 마피아라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저녁 내내 가만히 앉아서 칼드웰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칼드웰 씨의 젊은 시절, 밀레니온이라는 조직을 시작한 것, 그 때의 삼촌과 함께 했던 이야기...조직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밀레니온이란 아저씨에게, 인생 그 자체와도 같았다.

아저씨는 말을 하면서 웃거니 울거니 하며 과거를 추억하셨다.

m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빅 대디. 라고요... 별명이.

m 푸흐 — 웃기네요. 대디 라.... “아빠”?

d 마, 마리아!

m 뭐 — 비슷하게 아빠 뻔 아닌가요, 칼드웰 아저씨는? 후후...

칼드웰 아저씨는 답지 않게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긁으며 웃으셨다.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마피아 조직의 보스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수양딸 같은 사람이고, 이런 —

자신의 위치가 새삼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m 사실 비슷하게는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말이에요. 이게 집이야,
성이야? 저는 아저씨가 이 나라 영주나 뭐 그런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d 마리아, 무슨 — !

내가 놀리자 칼드웰 아저씨는 다 부은 눈으로 웃으셨다.
아저씨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오래 한 건 또 오래간만이다.

l 빅 대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랜디 씨가 들어왔다.
잠깐, 그럼...랜디 씨는 뭐지?

m ...랜디 씨. 랜디 씨도 그럼...

l 예예. 마피아입니다.

m

m 베어 워켄 아저씨도?

l 마피아입니다. 실력이 좋은 스위퍼죠.

m

m 저...무지막지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네요...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주변 분들 중 마피아가 아닌 분이 몇 명일까.
하아 — 정말. 맥 빠져버렸다. 의외로 쉽게 자신의 처지라거나, 마피아라거나,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갔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것 처럼...

l 마리아씨만 괜찮다면, 빅 대디를 빅 대디 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m 에?

m 칼드웰 아저씨를 “아빠” 라고 부르라고요?!

d 랜, 랜디! 무슨 말이야!

l 음? 아니, 빅 대디를 빅 대디라 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m 빅 대디...

m 「대디」

익숙치 않은 발음을 혀 위에서 굴러보았다.
대디 — 라...
아버지가 없었던 내게는 어색한 이름이었다.

m 후후, 칼드웰 아저씨. 앞으로는 대디 라고 부를테니까, 잘 부탁해요.
d!

칼드웰 아저씨는 놀란 듯 랜디 씨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고 계시다.
d ...마리아, 정말...정말 고맙구나... 나 같은 늙은이라도, 이제 가족이 생긴 건가.
m 아니에요.
m 전부터 쪽,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아니었던 순간 같은 건 없어요. 저도 패밀리예요.
d! 마리아...

가슴이 북받쳐 올라 대디와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시간이 많이 늦어 오늘은 대디의 저택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내 뒤편으로 배정된 방으로 올라와 누웠다.
정말 파란만장한 하루였다.

순간, 브랜든이 내 뇌를 스쳐지나갔다.
m 브랜든...!
맞아, 브랜든이... 대디를 감싸려다 다쳤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브랜든을 찾아가보는것이 좋겠어.

label big_daddy02(5장이상):
#브랜든 병문안
#해리와의 조우

깃털같은 것이 채워져 있는 고급스러운 베개는, 나를 몇 분 지나지 않아 잠들게 만들었다.
아침 햇살이 방을 향해 들어오고, 조식이 준비되었다는 리본이 방 문에 매어져 있었다.

m이런 것 때문에 따로 나와서 살겠다고 한 건데.

여하튼지, 브랜든이 걱정이다. 그가 어쩌다가 총에 맞은 건지조차 지금 정확히 모른다...
조식으로 준비된 성찬 중 빵과 우유만 간단히 집어먹고, 나는 칼드웰 아저씨와 함께 브랜든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리무진을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뛰어내린 나는, 병원 카운터에서 그의 호실을 알아낸 후
아저씨가 병원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동안 그의 병실을 향해 발을 급히 향했다.

어제 들은 전화로는 그가 총상을 입었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브랜든은 나 때문에 다친 것이다.
그 파티에 브랜든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렇지만 그렇다면, 대디거나 내가 대신 총에 맞았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더더욱 발걸음을 빠르게 해 병실까지 도착한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안에는 브랜든이 상체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었다.

m 브랜든!

b 마리아..? 여긴 어떻게..?

반응하는 모양을 보니, 정말 괜찮은 모양이다.

브랜든은 가슴과 팔 근처에 거즈를 댄 상태였다. 아마도, 총알이 옆을 스쳐지나간 거겠지.

어디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맞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그래도 그의 몸에 감겨 있는 붕대를 보니, 마음이 아파 온다.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의 몸을 찬찬히 살펴보며 말을 건넸다.

m 브랜든..... 아프지는 않아? 괜찮아?

b 응. 이젠 멀쩡해.

브랜든은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일으켰다.

m 움직이면 안 되지 않아? 무리하지 말고 아직 누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b 걱정 끼쳐서 미안.....

b 마리아야말로 놀라지 않았어....?

m브랜든, 총에 맞은 건 브랜든이야...

브랜든은 저런 몸을 하고서도 나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

내가 자신이 다치거나 총기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을까 하고 안색을 어둡게 한 채로 내가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오는 것이다.

m 응. 나는 괜찮아...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m 오히려.....미안해. 나는...

b?

브랜든에게 빅 대디니 밀레니온이니 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중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브랜든이 다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다.

b

m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나서 놀라지는 않았어...?

m 브랜든은 그냥.... 나 때문에 들른 건데...이런 사고가 나서...나는 정말..

b ...? 마리아, 아니야. 이건....

m 미안해. 정말 미안해...브랜든....내 탓이 아니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겠지만,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m 브랜든이 어떻게 됐다면 정말 나는...

b마리아.

b 내가 총에 맞은 건....

그런 얘기를 하던 중, 대디가 허겁지겁 병실로 들어오셨다.

d 헉....헉...마리아, 브랜든 군...자네 몸은 좀 괜찮나?

b 예. 괜찮습니다.

m 안 돼— 움직이면 상처가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b 으응..

m 대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브랜든에게는 설명해주신 건가요?

d ...?

b

잠시간의 정적이 흘렀다.

브랜든은 대디를 빤히 쳐다봤다.

뭐야, 마피아나 그런 내용에 대해 전혀 브랜든에게 설명도 해 주지 않은 건가, 이래서야 브랜든은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총을 맞은 것 밖에 안 되지 않나 — 그렇게 생각해 대디에게 무언가 따지려던 순간 대디가 입을 열었다.

d 브랜든 군.

d 그랬던 건가?

b예.

b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d 아... 마리아. 브랜든 군이 놀랄까봐.... 대중의 사정을 설명하겠네.

d 브랜든 군이, 나에게 덤벼드는 괴한을 막아선 거야.

d 브랜든 군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내 목숨도 남아 있을 지 어쩔지.

d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네.

d 병상에 나 대신 브랜든 군이 누워 있는 것과...다를 게 없지. 정말...면목없네.

d 자네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브랜든이, 대디를...?

d 그래서...마리아에게 바로 사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나 때문에 마리아와, 마리아의 친구 브랜든군까지... 위험해진 거니까.

m 대디, 어제 모든 걸 말해 주시기로 하신 것 아니었나요? 브랜든이... 대디를 감싸다가 다쳤단 말인가요.

b ...마리아.

m 브랜든은 가만히 있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이렇게 된 일이라고는 들은 바가 없는데.

m 대디, 어제 이런 얘기는 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m 브랜든이 대신 총을 맞다니요 — 이걸 정말,

사실이였다.

브랜든이 총에 맞은 이유가 빅 대디를 감싸기 위해서였다고?

b 마리아가 항상 칼드웰 씨에 대해 말했었지. 나는....

b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어.

브랜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물론 대디를 위해서라면 나도 내 몸이 먼저 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내게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 칼드웰 아사기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던진다는 건가, 브랜든 히트라는 남자는.

그렇게까지 바보인 건가.

m ...브랜든, 놀라지 말고 들어. 나, 말할 게 있어.

d 그래.... 브랜든 군, 마리아도 사정은 대강 알았단다. 마리아....잠깐 진정하고 내 얘기를...

m 대디가 마피아 조직... 「밀레니온」 의 보스라는 것, 브랜든도 알고 있었어?

d어제, 마리아와 얘기했단다.

d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d 마리아에게 밀레니온과, 내 위치를 알려주었단다.

m 그래서 어제 그런 사고가 생겼던 거야. 조직의 보스인 대디를 노리고서... 그런데도 브랜든은 아저씨를 감싸고 대신 총을 맞았다는 거지.

m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브랜든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같네?

d마리아...

b

m 왜 숨겼어?

m 브랜든은 내 숙부 쯤 되는 사람이 마피아라는 걸 알아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거네.

d 마리아, 그는 그저...

m 또,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브랜든. 무섭지 않았어? 죽을 수도 있었다구.

m 총알이 날아오는데 다른 사람을 막아서고 대신 죽으려고 하다니, 보통 무리라구!

m 브랜든을 내가 초대하지만 않았어도...브랜든은...!

괜히 울컥해서 브랜든에게 무언가 한 소리를 하려는 순간 헐레벌떡 병실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h 브랜든!

b ...!

b 해리.

d 이런, 이런... 늙은이는 잠깐 자리를 비켜줄 테니...

m 대디! 저랑 얘기하시던 중 아니었나요 — 저는 브랜든이 왜 아저씨 때문에 총에 맞은 건지 —

h 이런 — 마리아! 환자 앞이라구. 싸움은 좋지 않아?

해리는 나와 칼드웰 씨 사이를 막아서더니 브랜든에게 짙은 윈크를 했다.

h 브랜든 —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브랜든 히트가 또 한 건 해결했다는건 알았어.

b 아아— 해리.

h 정말... 걱정 끼치는 것도 정도가 있다구...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했겠어?

h 뭐, 그래도... 사람을 구하다니. 정말 대단한걸.

h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m 뭐 — 무슨...

h 브랜든이, 마리아의 가족을 몸 던져서 구한 거잖아? 브랜든이나, 저기 — 마리아네 아저씨한테 소리를 지를 일은 아니지.

m

d 미안하네... 나는, 차후에 다시 오지. 세 명이서 잠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네.

d 마리아, 미안하다. 집에서 다시 얘기하는것이 좋겠구나.

맞는 말이다.

분했다.

어제 이 사실에 대해 칼드웰 아저씨가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컥해버리고 말았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잘못된 건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브랜든도... 내 가족을 구해 준 것이다.

브랜든에게 사과와 감사는 하지 못할 지언정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칼드웰 씨는 리무진을 불러 먼저 돌아가시고,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셋이 멀뚱히 서 있는 꼴이 되었다.

m ...미안. 잠깐 머리좀 식힐 겸 음료수라도 사 올테니까 —

분위기를 바꿀 겸, 잠시 음료수를 사러 밖에 나갔다.

병실 밖에서는 빅 대디의 부하인 듯 한 사람이 여럿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어두운 인상의 남자들.... 허리춤에 무언가를 차고 있는 걸로 봐서, 저것도 총인가.

조직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

방금같이 대디가 내게 얘기하지 않을 내용들이 도대체 몇 가지일지는 모른다.

그러나...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대디에게 궁금한 걸 물어볼 권리가 있다.

대디에게 어제 브랜든에 대해 묻지 않았던 걸 떠올렸다.

m 칼드웰 아저씨 — 아니, 대디라면. 내가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내 가족을 믿는다.

해리의 말이 맞다. 오늘도... 아저씨나 브랜든에게 화내기 전,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아저씨는 아저씨 나름대로, 브랜든도 브랜든 나름대로 나를 배려한 것일 텐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귀를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mob 라이트닝 녀석들, 감히 밀레니온을 노리고 ---

mob 그렇게 말이야.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mob 대디가 회장이 된후, 밀레니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지...

mob 자선 파티라니! 하! 전이라면 생각도 못했을 내용이라고.

mob 어이 — 말 조심해. 그래도.. 대디쯤이나 되니까 이 조직이 이렇게 커진 거지.

mob 이 신입이 없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 했어.

mob 그러니까 말이지. 조직 인재 동용 하나는 끝장나게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mob 그래. 이번에 들어온 그 두 놈...정말 대단해. 특히 하나는 얼굴도 반반한 게, 딱 키우기 좋게 생겼지?

mob 랜디 밑에서 일한다는 그놈 말야?

그들은 얘기하다가 내 쪽을 쳐다보고는,

mob

자리를 피했다.

조직에 내 얼굴은 알려져 있는 걸까.

다음에는 나를 노리러 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숨을 쉬면서 병원 내 매점에서 음료수 몇 캔을 샀다.

브랜든을 위해서 달콤한 음료수도 사고 싶었지만, 환자가 이런 걸 마셔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온음료로 정했다.

병실로 돌아오자 해리와 브랜든이 무언가 얘기 중이었다.

h 브랜든, 정말 잘 했어. 이번 일로 아마 우리는...

b 그런가... 해리. 나는...올바른 일을 한 건가.

m 나 왔어.

h 마리아, 여어!

h 내 뒤통스 뭘 사 왔어?

봉투를 뺏어 든 해리는 음료 하나를 집어들고 뭐가 좋은지 실실 웃기 시작했다.

m

m 자, 브랜든은 여기. 아직...이런 걸 마셔도 되나 싶어서 이온음료로 사 왔어.

b 고마워.

h 자 — 마리아. 표정 좀 풀라고, 브랜든도 멀쩡하고, 네 가족도 멀쩡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m 다행이라니....해리.

m 브랜든이 죽을 뻔 했는걸.

m아까는, 조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랬어. 미안해.

h 정말 — 브랜든, 마리아는 이렇게 널 걱정하는데 말야... 너도 슬슬..

b 해리.

h 뭐 —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리아. 브랜든은 네 가족이기 때문에 몸을 던져서 그 분을 구한 거다.

h 올바른 일을 한 게 아닌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마리아도, 적당히 화를 내고 조금은 브랜든이 멀쩡한 데에 감사하자고.

m

해리 맥도웰은 알뜰게 말을 이어나갔다.

h 어쨌든, 브랜든. 조심하지 그랬어, 소식을 듣고 너 정도라면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h 이렇게 다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이야 — 죽거나 몸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뻔 했어.

m 브랜든이 아무리 날렵해도, 상대는 총을 든 마피아였어.

b아아.

m 브랜든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h 그런가?

h 마리아, 브랜든이라면 말야 —

b 해리.

h 아니, 브랜든. 언제까지 입다물고 있을 거야? 브랜든 히트는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다르다구 —

b 해리.

b 그만해.

h언제까지 숨길 거야, 브랜든?

h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해리는 굳은 얼굴로 브랜든 쪽을 바라봤다.

브랜든이, 해리에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봤다.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h 브랜든.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h 사실은 사실이잖아?

h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 브랜든 네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닌가. 하하하!

b

m ... 해리.

m 지금 이야기, 무슨 말이지...

h 응? 하하하하, 마리아.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라면 대답해 줄 수 있는데?

b 해리...!

h 나, 이것저것 알고 있는 사실도 많고. 자, 어쩔래?

해리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1. 해리에게 브랜든에 대해 묻는다.
2. 해리에게 빅 대디에 대해 묻는다.
3. 해리에게 밀레니온에 대해 묻는다.
4. 해리에게 해리에 대해 묻는다.
5.묻지 않는다.

#브랜든에 대해 물음

...브랜든에 대해 해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해리에게 브랜든에 대해 묻기로 했다.

m 해리.

h 그래, 마리아.

m 브랜든이라면 피할 수 있었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m 내가 생각하는 브랜든과는 다를 수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h ...마리아, 정말로 모르는 건가?

브랜든은 해리 쪽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봤다.

h ...이런...정말로? 정말 모르는 거야? 정말이야?
b
m ...?
h 브랜든, 너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야?
b
h 정말 마리아는 모르는 눈치인데.
m 뭘 모른다는 거야? 대체?

해리는 가볍게 웃더니 분위기를 무마시켰다.

h 하하하! 마리아, 너 정말 바보구나. 너 브랜든이 원래 총을 잡아본 적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대체 —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b ...!

브랜든은 해리쪽을 보더니 내 쪽을 보고 우물대면서 얘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b ...전에, 살던 마을에서... 사고가 있었어. 케니들이 총에 맞아서... 우리도 위험했어.
b 전에도...이런 일을 겪었었다는 뜻이야. 마리아가 들으면 놀랄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지 못했어.
b 미안해...
m 브랜든, 그게 무슨...

h 그런 일이 있었다.
h 아아...응. 여기로 쫓겨오듯 도망쳐 온 것도... 그 이유에서야. 브랜든도, 나도, 그 총격전에서
우리 둘만 살아남았다.
h 나머지 녀석들은...그만.
b

문득 브랜든과 같이 지내던 케니 씨와, 그 친구들을 떠올렸다.
분명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브랜든도 해리도 이 마을로 이사와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h 우리가 사건에 휘말린 탓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대신... 총을 맞고, 죽었다.
h 브랜든은 아마 그 때 생각했던 게 아닐까, 마리아. 총이란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브랜든은 분명 그들을 감쌌을거라 생각해.
b 아아.
m 해리..브랜든...

m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난...

도대체 나는 무슨 오해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브랜든에게 미안한 마음이 솟구쳐 오른다. 브랜든은 그저, 다시는 자신의 친구와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m 미안해...

해리와 브랜든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할 일도 있는 것이다.

브랜든의 상처를 건드린 듯 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m 나는...그런 생각으로 말을 한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브랜든의 나쁜 기억을 되살리게 된 것 같네.

b 마리아, 아니야.

b네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했어.

b 특히 이번 사고도.... 마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h 뭐어 — 마리아, 너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 참....도대체 그건 무슨 바보같은 생각이야?

b 마리아는, 나와 칼드웰 씨에 대해 걱정이 심할 뿐이야.

해리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기를 잘 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다.

#빅대디에 대해 물음

해리에게 칼드웰 아저씨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지도.

브랜든과 아저씨는 알고 있는 사이인 것인지?

브랜든이 정말 그냥 아저씨를 감싸다 총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m 해리, 칼드웰 아사기 씨에 대해 알고 있어?

h 응? 무슨 소리야, 마리아.

h 모르는 게 이상하잖아?

m ...뭐?

해리는 뭔가 수상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좀 더 캐묻기로 했다.

m 그렇다면 다시 상대를 바꿔서 질문할게. 브랜든, 우리 아저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b

h흐음.

h 마리아 — 그건...

m 지금, 브랜든에게 묻고 있는거야.

h 아아 — 그게 말이지, 마리아....

m 해리는 안다고 했잖아? 그래서, 브랜든에게 묻는 거야.

h

m 브랜든도, 아저씨와 밀레니온... 그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h 아 — 이런, 이런. 마리아는 못 속인다니까. 정말?

h 그래. 칼드웰 아사기 씨 —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b 해리...!

h 우리 둘 다 너희 숙부님...음, 뭐라고 해야 할까? 칼드웰 씨와는 전부터 알던 사이야.

b 해리, 무슨...

h 그거야 그렇게 — 우리를 그 마을에서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대체 무슨 수로 이 부자 도시로 이사왔겠어?

b ...!

그것도 그렇다. 브랜든도 해리도, 대체 어떻게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빈곤한 마을, 빈곤한 살림이었다. 브랜든도, 해리도...모아 둔 돈 따윈 없었을 터.

해리는 모르겠지만 브랜든 쪽은 분명, 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도시에서, 그런 대기업에...?

m 아저씨께서...너희를..?

m 어째서...?

b마리아, 그건....

h 으...음... 마리아가 신경쓸거라 생각해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역시 마리아 때문이지.

b!

h 우리, 이렇게 보여도 마리아의 친구들이니까...특별히 신경 써 주셨던 거야.

b ...랜디 씨에게, 해리가 부탁했다.

b 그 때 칼드웰 씨가 밀레니온이라는 조직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h 뭣 — 브랜든. 사실 고하기냐? 부끄러워 지잖아, 이 쪽이!

b 랜디 씨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고, 해리가...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줬어.

m 그런....

m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b

m 나는, 그것도 모르고...

b 마리아, 어떤 오해를 했었던 걸지는 모르겠지만...너를 속여온 것은 맞아.

b 사과할게.

b 마리아를 찾아서, 여기까지왔다고 하면... 마리아가 부담스러워 할 지도 모른다고.

h 아 — 그래도, 일을 구하고 거기서 진급하고 한 데에는 우리의 공이 컸다고? 누구 손을 빌리거나 한 게 아냐.

h 제대로 집이라던가도 구해서 살고 있다고. 하하하하!

h 브랜든은 저렇게 말하지만, 저 녀석도 랜디 씨에게 내가 부탁한 후로 자기 스스로 이뤄 온 것 뿐 — 마리아라거나 칼드웰 씨 손을 빌린 건 없다.

h 나 해리 맥도웰이 보증하지.

d 그 후 매그리드 컴퍼니로 소개받아 들어오면서, 해리와 나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m 그런...그래서 아저씨에 대해 알고

m 정말....내가 미안해지잖아.

b 무슨 소리야. 우리 쪽이...미안하지.

b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미안했어.

b사과할게.

m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쪽은, 나라고 생각해....

h 마리아 말이 맞아.

m 무슨 — 해리야말로 —

우리 셋은 서로 그런 말을 하면서 한바탕 웃었다.
둘이 어떻게 이 도시로 건너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런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오늘에야 알게 되었다.
또, 나를 위해서 대디가 어디까지 신경써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통 친구들에게까지 이 정도로 신경써주는 부모는 없지 않을까. 물론 대디는 내 부모는 아니시지만...
새삼 감사함이 밀려오고, 브랜튼이 어째서 아저씨 대신 총을 맞으려 들었는지에도 이해가 갔다.
그 둘에게도 칼드웰 씨는 은인인 것이었다.
문득, 칼드웰 씨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안도하게 되었다.

해리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기를 잘 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다.

#밀레니온에 대해 물음 truthpoint+1
...해리는 분명히 수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내가 과민할 걸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바로 어제 아저씨에게 들은 사실이 있다.
「밀레니온」이라는 조직 말이다.
해리는 밀레니온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사건의 전말이 결국 밀레니온에서 시작된 것이니 만큼, 해리가 이렇게 수상쩍게 구는 데에도 밀레니온이 관계되어 있을 지도.

해리에게 밀레니온에 대해 묻기로 다짐했다.

m 해리.
m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m 해리, 「밀레니온」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말해줬으면 하는데.
b!
h

내 입에서 「밀레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b마리아, 어떻게...
h
h 마리아,
h 「밀레니온」이라는 건 말야,
h 「빅 대디」의 밀레니온을 말하는 건가?
b 해리...무슨...?

해리 맥도웰.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밀레니온에 대해 알고 있는 건가.

h 마리아도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 — 이것 참.... 빅 대디를 실물로 만나는 건 이번이 두번째인가? 저번에는 랜디 씨 옆에서 발끝 너머로 보았거든.

h 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밀레니온에서 일하고 있어.

해리가....조직원이라고?

m 무슨...브랜튼과 함께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서 일한다는 것 아니었어?

b

브랜튼은 가만히 나와 해리를 쳐다봤다.

b 마리아.

h 응 — 그건, 브랜튼 만.

b

h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는 아주 큰 회사다. 여러 어두운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지.

h 그 중 하나가 밀레니온. 나는 밀레니온 소속이다.

b해리...

브랜튼은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h 브랜튼과는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셈이지.

h 나는 밀레니온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다... 라고 할까,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 소속이야.
명목상으로는. 거짓말 한 것은 없다고.

h 마리아 생각대로 위험한 일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h ...사고가 벌어진 건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한다. 나라도 이런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m ...어제, 빅 대디 — 칼드웰 아저씨에게 들었어.

m 그동안 내게 회사에 대해서 여쭙봐도...아저씨는 왜인지 제대로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

m 바보같이...나는 그게 아저씨가 내가 부담스러워 할 까봐 걱정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어.

b 마리아...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일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했다.

m 그래..서.... 브랜튼이나, 해리에게...웃...나는...

괜시리 복받쳐오는 감정에 눈물이 떨어져,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다.

해리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 했다. 브랜튼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하니 더더욱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b마리아,

브랜튼은 고개를 떨구고 있던 나에게로 몸을 당겨, 내 손을 잡아주었다.

b ...마리아의 잘못은 없어.

b 마리아라면...아마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나나 해리에 대해서.

h 면목 없군.

h 그렇지만, 다시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

h 그래도 전같은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필요는 — 브랜든한테 한 대 맞을지도 모른다구?

장난스레 말하는 해리의 말을 들으니 가볍게 웃을 수 있었다.

b 해리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b 회사에 대해서도...

b 마리아가 알면 분명 걱정할테니까.

m 아니야... 나야말로, 너희를 의심하게 된 꼴이잖아.

m 정말, 이게 뭐야.... 나는 브랜든이 왜 다쳤는지 아저씨한테 따지는 꼴을 보인걸로도 모자라...

내 자신이 정말 바보같았다.

순간적인 감정에,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소외감에 — 그만 실수를 저질러버린 것이다.
눈물을 닦고 해리와 브랜든에게 사과했다.

m 미안해...

m 해리에게 밀레니온에 대해 묻고 싶은 게 많지만...나중에.. 오늘은, 때가 아닌 듯 하네.

h 마리아를 위해서라면야 시간을 낼 수 있지. 괜찮지, 브랜든?

b 아아.

h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보증해 보일 테니까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구.

h 브랜든에 대해서도...걱정할 건 없어. 정말로.

h 이 해리 맥도웰이 약속하지.

해리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기를 잘 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다.

#해리에 대해 물음

제일 수상한건 해리일지도.

해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일 지도?

h 자, 어때. 뭔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라던가, 알고 싶은 게 있어?

마음을 다잡고, 해리를 똑바로 쳐다본 채 말을 이었다.

m 나,

m 해리에 대해 알고 싶어.

b

h

b

h

b

h

...어라?

둘 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역시, 해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

m 해리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해.

b

h

b 마리아아....

브랜든이 울것같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해리가 경직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m ...?

이 분위기는 —

m 아, 아 취소! 취소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 !

h 마리아, 내가 아무리 XX 염색체면 다 오케이라고 해도...브랜든의 여자는...조금...

b

브랜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

뭔가 말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h 마리아,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야... 자... 뭐가 듣고 싶어? 내 번호는 이미 알고 있고...

m 해리 — !!!!!

해리의 말장난으로, 분위기가 확 풀어져버렸다!

확실히, 해리는 재치있는 남자다.

그렇지만, 해리 말대로 내게는 브랜든이 있고!

m 정말, 진지한 와중에 장난치기 없기야. 나한테는 브랜든이 있다구!

b마, 마리아...

브랜든은 이쪽을 올려다본다.

b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다면....나는... 마리아를...

양보할 생각 하지 마! 양보당해 줄 것 같냐.

m 무슨 소리야, 브랜든! 말이 이상하게 나온 것 뿐이라고 —

m 해리가 제일 수상하니까, 해리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던 것 뿐.

m 해리 — 솔직히 다 부는 게 좋을 거야.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h 워! 마리아. 두 번 기회를 준다고 분명 말했잖아?! 아쉽게도 이번이 한 번! 한 번 더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m 뭐라고 — !!

이딴 바보같은 이야기로 소중한 기회를 낭비할 것 같냐!

m 다음에는 정곡을 찌를 걸 물어볼 테니까 말이야, 각오하라구!

정말.... 분위기가 영 이상해 진 것 같다. 그렇지만, 다행이다.
해리도, 브랜든도 소중한 내 친구이니까.
이런 일로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리를 지르는 척 했지만, 셋의 얼굴에는 모두 웃음기가 띄워져 있었다.

해리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기를 잘 했...
잘 한건가?
우리는 부랴부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다.

#묻지 않음

....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해리를 추궁할 용기가.
왜일까?
왜 용기가 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나 우유부단한 걸까.

b

브랜든이 내 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 브랜든도 내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추궁하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m 아니야, 묻지 않을래.
m 나, 해리와 브랜든을 믿어.

b 마리아...

m 그리고, 어제 들었는걸....
m 빅 대디에게, 밀레니온에 대해.

b!!!

h ...응. 이제, 슬슬 그럴 참이라고 생각했어, 마리아.

b ...해리. 그렇지만...

h 브랜든도 언제까지고 마리아를 과잉보호하려는 건 그만둬.

m ...브랜든 잘못이 아냐. 내가 사실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 뿐...

m 어제, 칼드웰 씨와 저녁 내내 얘기 했거든. 밀레니온과, 이번 총격 사건이 어쩌다 일어나게 된 지에 대해서...

b 마리아...
h 그렇게 된 건가.
b

그래서 더욱 더 예민했는지도.
m 해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해리를 믿어.
m 브랜든이.... 해리를 믿기 때문에.
m 해리도, 브랜든도 내 친구라고 생각해.
b
b 응.
b 나도, 보증할게.

h 그렇게 말하다니 — 으아아, 더 말해버리고 싶어지는데?
m 도대체 무얼...
h 브랜든이 왜 너희 숙부 대신 총을 맞았는지에 대해 궁금한 거지? 그건 —
h ...다음 시간에!

뭐 — ?!
긴장했던 순간이 확 풀어졌다.
m 뭐 — 무슨 소리야! 지금 말해줘, 해리!
b 마, 마리아...
h 하하하! 별로, 무거운 얘기는 아니라고? 브랜든, 뭘 걱정하는거야?
b 해리, 그렇지만...
h 와 — 이것 좀 봐. 마리아! 벌써 브랜든이 내가 마리아랑 따로 만난다니까 질투하는데? 별 일 없을 거니까.
m 해리라면 나도 사양이야, 브랜든....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h

순간 해리의 표정이 굳어진 것 같지만,
뭐 상관없나?

h 어쨌든 나중에 마리아랑 얘기도 할 겸 만나려고 하는데.... 둘 다 괜찮지?
b 물론이지.
m 으, 으응...

뭐랄까, 방금 브랜든과 내 대사 바뀌지 않았나.
역시, 친구들을 믿는 것이 정답이었나.

해리에게 물어보지 않기를 잘 했다.
앞으로도, 이러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다.

#병실 돌아옴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셋이서 가만히 서로를 쳐다보며 웃어보였다.
다행히 브랜든은 심각히 다치지 않았다.

브랜든 덕분에, 칼드웰 아저씨도 충상을 입지 않았다.
또, 셋의 관계도... 이번 기회에 더더욱 돈독해 진 느낌이다.

m 브랜든, 그래서...한 얼마정도 입원해있어야 하는 거야?
b 글썄... 적어도 1, 2달은 병원 신세일 것 같아.
h 뭐 — 아무리 스쳤어도 충상은 충상.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좋겠지.
h 회사에는 내가 연락해둘게.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
b 아아 — 그런가...
b 여러모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m 회복하는것부터 걱정해야지, 내가 자주 병문안 올테니까 지루할 틈은 없을 거야!

브랜든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그동안 쉰 만큼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자주 브랜든을 찾아오면서 브랜든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다.
나를 생각해서 몸을 사리지 않은 브랜든에게 미안해지고, 또 고마워졌다.
정말...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는지.
해리와 브랜든과 함께 병문안 시간이 끝날 때까지 떠들었다.
브랜든과, 해리와 앞으로 지낼 날들이 더더욱 기대된다.

label big_daddy03(10장):
#빅 대디와 브랜든과 저택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마리아

#암전
#시계소리

m 아, 오늘 브랜든 보러 가는 날이었지!
m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지!

브랜든이 입원한 지 2주정도 지났을까,
브랜든은 이제 움직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아직 입원하고 있는 게 낫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브랜든 측에서 많이 지루해하는 것 같았다.

m 브랜든 줄 책도 챙기고, 오늘은 월로 하지?

그런 브랜든을 위해, 병문안을 갈 때마다 책이라거나 여러 읽을 거리를 브랜든에게 가져다주었다.
브랜든은 굉장히 기뻐하며, 너무도 고마워했다.
아마도, 직접 물어보는건 예의가 아니라 그러지는 못했지만...브랜든은 제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는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다.
또 내가 책을 가져다주는 데에 크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b 마리아, 왔어?
m 브랜든!
b 마리아, 저번에 가져다 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말인데... 조금 읽는 게 늦어져서.
b 며칠 더...읽어보다 돌려줘도 괜찮을까.

m 응? 물론이지.

m 칼드웰 아저씨네 서재에서 가져온 거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돼.

충격 사건이 있던 후로는, 위험하다며 극성인 대디 때문에 칼드웰씨네 댁에서 묵고 있다.
이 엄청난 대저택에는, 거의 한 마을의 도서관만한 서재라거나, 몇 층이나 되는 드레스룸이 있는 것이다.

....이래서 여기 사는 건 좀 그렇다고 한 건데!

어찌되었건, 어느새 매주 서재에 들러 브랜든에게 가져다 줄 만한 책들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된 것이다.

브랜든이 의외로 고전 문학같은 인문적 요소가 담겨있는 책들을 좋아한다는것을 알게 된 것도.

m 병실에서 브랜든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해서 책을 가져온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

m 자, 오늘은 이것도 같이.

책을 읽기 편하도록, 전에 안경점에서 장난삼아 맞춰보았던 안경을 브랜든에게 선물했다.

어제 시내에 나가서 안경점에서 받아온 것이다.

다행히 브랜든과 그 때 잦던 시력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b 마리아, 이 안경...

m 응 — 기억나? 우리, 방학때 같이 안경점에 갔었잖아. 그 때 쯤 시력과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b 고마워...

브랜든은 안경을 받아쓰곤, 내 눈치를 살피왔다.

b 안경 쓴 모습이 혹시 이상하거나 하지 않을지...

b 어색하지 않아...?

m 무슨 소리야! 정말 잘 어울려.

b 고마워... 훨씬 잘 보여.

브랜든에게 책을 가져다주면 몇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서 읽곤 했다.

오늘은 안경을 받아쓰고, 몇 분간 대화를 하다가 서로 자신의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안경을 한 손으로 올리는 그 모습은....

솔직히 브랜든이 나와 함께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분명 그랬다면 친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안경을 쓴 브랜든의 인상은 훨씬 유순해 보여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다.

브랜든의 이런 모습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솔직히 기뻐다.

m 후훗.

b ...?

눈을 동그랗게 하고 책을 읽다가 이 쪽을 바라보는 브랜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도 다시 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졸업 후, 이제야 좀 느긋해졌나 싶었지만... 뒤흔친 충격사고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는 바람에 제대로 취업 준비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브랜든의 병문안을 오면서, 브랜든에게는 입을 책을 전해주고 나는 취업용 공부를 하면서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b 마리아, 뭘 공부하는 거야?

m 응 — 비서실무랑 경영일반 관련된 내용들? 이번에 비서직 지원을 생각해보고 있거든.

m 아무래도 이 쪽이 내 적성이랑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저씨도 추천해 주셨거든.

b 그런가...

b 마리아가 비서라...

브랜든은 가만히 고민하는 듯 했다.

m 이상해? 안 어울릴까...?

b 아니...비서라고 해도. 주변에 본 비서라고는 랜디 씨 밖에 없어서.

b 뭔가... 마리아에, 랜디 씨... 라는 생각을 하니까...

m 푸하하! 뭐야, 전혀 안 어울려!

내가 랜디 아저씨같이 된다니, 너무 웃겨서 브랜든과 한참을 웃었다.

m 하긴... 잊고 있었지만, 랜디 아저씨가 칼드웰 아저씨 비서였지... 사실 겉으로 보면, 랜디 씨
쪽이 더 사장같지 않아?

m 칼드웰 아저씨는 뭔가 사장이라기보단 인상 좋은 아저씨~ 전에는 무슨 작위 하나정도는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b 그런가...

b 그렇지만 나는, 칼드웰 씨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걸.

b 랜디 씨도 그렇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b 칼드웰 씨가 CEO인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브랜든은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브랜든이 보기에 칼드웰 아저씨의 어떤 점이 그런 인상을 준 걸까...?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데, 브랜든에게만 보이는 아저씨의 장점이 있는 걸까.

m 그래? 그런가... 아, 하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도 복지를 펼치고 계시니까.

m 나도 몰랐는데, 아저씨께서 우리 대학이나...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업을 하시고
계시더라구.

b 아아.

b 마리아. 칼드웰 씨와 함께 지낼 수 있어...다행이야.

m 브랜든하고 그러고보니 아저씨랑 자리 한 번을 마련하질 못 했네.

m 브랜든, 퇴원할 때 짬 되면 하루쯤 대디네 댁에 놀러와!

b 집에...?

m 응. 브랜든도, 아저씨 번호 알고 있잖아? 대디도 브랜든이라면 대환영일걸. 다 나오면 퇴원
기념 겸 놀러와도 괜찮아.

b내가 가도 괜찮다면, 나는 영광이야.

b 꼭...한 번 만나보고 싶었어.

브랜든은 미소를 지으면서 책장을 넘겼다.
브랜든이 빨리 나아서,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한 번 마련해야겠다.

병문안을 다녀와서, 빅 대디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저녁시간에 대디에게 브랜든과의 자리를 마련하는것이 어떨겠냐고 여쭙기로 했다.

m 대디!
d 하하, 마리아... 기다렸니.
d 오늘은 여쭙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요. 자, 빨리 저녁 먹으러 가요.

집에 돌아온 칼드웰 아저씨를 곧바로 데리고, 식사를 하러 향했다.
아저씨는 무슨 일인지 물어오며 나를 향해 미소지으셨다.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확실히 적응 안 되는 이런 저택이지만... 정말 가족과의 생활을
한다고 느껴진다.
서로 배웅을 해주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확실히, 전에 나가서 혼자서 살 때 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하다.
식사를 시작하며 대디에게 얘기를 꺼냈다.

m 브랜든 병문안을 오늘 다녀왔는데요...
d ..! 아아. 브랜든 군은 좀 어때. 몸은 많이 괜찮아졌니?
m 그럼요. 요새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걸요...
d 브랜든 군이?
d 그런가. 브랜든 군이... 그 편이 훨씬, 그에게는 낫지.
d 그래서, 무슨 일이니?
m 브랜든이 다 나오면 언제 한번 저희 셋이서 보는 게 어때요?
d 물론이지! 안 그래도 마리아에게 물어보려던 참이었단다.... 내가 브랜든 군에게는 큰
신세를 진 게 되었으니...
d 브랜든 군에게 목숨을 빚진 것과 다름없지 않니.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단다.
d 브랜든 군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는 게 어떠니? 케이터링 서비스를 부르는 게
좋겠구나.
m 정말 좋아요. 브랜든이 다 나오면... 퇴원 파티겸 부르도록 해요.
d 브랜든 군, 언제 정도면 다 나아서 나올 수 있는 거니?
d 벌써 2주는 병원에 있었는데... 많이 지루해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구나.
m 이제 걸어다니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d 그런가.... 역시, 젊은 친구는 다르구나. 그 친구는 뼈대가 있어서 강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m 하하! 대디, 그건 겉으로 보이는 인상일 뿐, 사실은 완전 달라요.
d 그래? 브랜든 군은 어떤 친구니?
d 마리아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잘은 모르고 있었구나.
m 무슨 — 교제라니, 아니예요!

아저씨도 참, 갑자기 무슨 소리람!

d 응..? 아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만나고 있던 것 같아서 그만.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d 브랜든 군이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나...?
m 아 —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
m 아직 그런 거 아니니깐.
m 어쨌든, 브랜든은 제 제일 친한 친구인 건 맞아요.
d 응... 그렇구나. 브랜든이 마리아를 아주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았단다.
m 맞아... 대디도 아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브랜든은...정말로 좋은 친구예요.
m 아니, 친구 이전에 정말로 좋은 사람이예요.
m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엄청나게 서툰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불사하는..
d그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
d 브랜든이 낫는 대로, 그를 부르자꾸나.
d 브랜든이 이후에도 원한다면..... 가끔씩 이 늙은이와 시간을 보내주면 고맙겠구나.
d 마리아, 브랜든과 내가 만나도.... 괜찮은 거니?
m 조직의 일로 걱정하시는 건가요.
d
d 마리아, 마리아에게 이미 말했겠지만... 마리아가 최대한 이 쪽 일과는 관련이 없었으면 하는 게... 이 늙은이 마음이구나.
d 마리아가 원하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니니?
m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m 저는 이미 빅 대디의 패밀리인걸요.
d 그렇다면, 브랜든도 나의 패밀리여도 괜찮은 거니, 마리아.
m 브랜든이?

대디는 브랜든과 나, 대디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또 이런 사고가 벌어질 걸 걱정하고 계신 걸까.
브랜든을 소중히 여겨 주시고 계시는 모양이다.

m 그건...브랜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m 브랜든의 선택이니깐.
m 브랜든과 만나면.... 저희 같이 얘기해보는 게 좋겠어요.
d 그러자꾸나. 정말....다시금 마리아에게 얘기 못했 던 점은 사과하마.
d 그 후로 브랜든 군, 또...친구인 해리 군과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m 그럼요. 둘 다 제 최고의 친구들인걸.

식사를 하며 브랜든을 부를 약속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 2주정도가 더 지났을까. 브랜든의 퇴원날짜가 정해졌다.
브랜든은 좀 더 일찍 나가고싶은 눈치였지만, 대디도 나도 극구 만류했다.
퇴원일에 바로 대디의 저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병원 앞으로 리무진을 보내기로 했다.

날은 어느새 초여름에 가까워져 있었다.
지금까지 거의 3주 넘게 입원해 있었으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집으로 브랜든을 부르는 건 처음이라서, 괜시리 기대가 되었다.
브랜든.... 아마 이 대저택을 보면 무지하게 놀라지 않을까.
대디가 브랜든을 초대한다고 했는데 어딘가 가서 돌아오시지 않아서, 무슨 초호화 서비스 준비라도 하고 계신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m ...나도 브랜든도, 그냥 점심식사 한 끼 정도면 괜찮은데....

m 사실, 케이터링 서비스라거나 거창히 부를 것도 없이...이미 고용인 분들이 해주시는 요리도 수준급이지 않나?

m 칼드웰 아저씨는 대체 어딜 가신거람?

조금 기다리자 사용인분께서 리무진이 저택에 도착했음을 알려주셨다.

b 마리아!

m 브랜든!

반갑게 홀로 걸어들어오는 브랜든을 껴안았다.

병원으로 자주 찾아갔지만 바깥에서 브랜든을 만나니 더욱 반가웠다.

b 마리아, 이렇게 큰 집...? 성..? 에서 사는 거야?

b 정말 놀랐어...

브랜든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높은 천장과 호화롭게 달린 샹들리에를 올려다보았다.

m 아 — 지금만. 여기는 대디네 소유. 학교다닐 땐 나도 영 부담스러워서, 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해서 살았어.

m 지금 여기서 지낸 지 한 한달정도 되었는데... 나도 역시 적응이 안 돼.

m 그렇지만 지내다보면 또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된다니까? 브랜든도 분명 그럴 걸.

m 그러고보니 브랜든네 집에 놀러가 본 적이 없네? 브랜든은 어디에 살아?

b 저번에, 경마장에 대해 말했던 것 기억해? 그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

b 이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b 집..? 이라는 건 다 이런 건 아니겠지?

말도 안되는 오해를 하고 있는 브랜든을 위해 한 마디 더 없었다.

m 응. 보통, 이 저택의 한 반 정도 크기에서 산다고 하더라구. 아무래도 대디니까 이 정도 되는 대저택에서 사는 게 아닐까 —

b 반...?

b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집에서 다들 살고 있는 건가...

b 대단한걸...

순진하게도 브랜든이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

브랜든 쪽을 보며 이겼다는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브랜든이 조용히 말했다.

b ...마리아. 나도 회사 분들의 집이라면... 둘러 봤는걸.

m

헛. 브랜든도 이제 시골뜨기는 아니라는 건가.

말장난을 걸었을 때 당황하기만 하던 어린 브랜든 히트는 이제 없다는 건가.

m 뭐, 농담이야. 농담. 나도 이렇게까지 큰 집을 사용하는 건 사양이니까~

새삼스레 브랜든을 올려다봤다.

확실히, 브랜든은 전보다는 조금 더 듬직해졌다.

이런 말장난에도 따라서 장난을 걸어 올 줄도 알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도중이라 조금 전보다는 살이 빠진 모양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탄탄한 몸을 하고 있다.

전에 살던 마을에서도 운동은 거르지 않고 했었는데, 여전한 것 같다.

m 정말, 브랜든. 많이 자랐네.

b ...? 키가?

b 그대로 인 느낌인데...

브랜든은 살짝 까치발을 들며 자신의 키를 재 보고 있다.

m 아냐, 이것 봐.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앞에 서면 이 정도로 왔는데...

브랜든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이마를 살짝 기댄 채로 머리 끝으로 브랜든의 키를 가늠했다.

손을 가슴께에 대고 키를 가늠해보니 역시 브랜든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았다.

m 지금은 한 이정도? 까지 오는 느낌이야. 브랜든, 이사와서 좀 더 큰 것 아닐까...?

남자애들은 20대 중후반까지는 조금씩 큰다고 하던데..

b!!! 마, 마리...

d 이런, 좋은 때를 늙은이가 방해했나?

b 아, 아닙니다..!

m 대디 — ?!

순간 대디가 키친 문을 열어 우리를 반겼다.

깜짝 놀라서 브랜든에게 붙어 서는 바람에, 브랜든의 가슴에 내가 기대있는 꼴이 되어버렸다.

브랜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대디에게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m 맞아요 — 한참 좋을 때였는데? 그치, 브랜든?

b 마, 마리아...그런...

d 하하하하! 브랜든군, 용서해주게. 마리아가 워낙 당찬 사람이라서 말이지.

d 브랜든군은 그에 비해 과묵하고 조용하니까.... 마리아에게 브랜든군을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하나? 하하하하!

m 뭐라구요? 후훗...푸핫..... 저도 밖에서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구요, 브랜든이 너무 소동물 같은거야 —

b 소, 소동물이라니....

b 나도 어엿한...!

한참을 셋이 그렇게 웃다가, 빅대디가 웃다가 눈에 맺힌 눈물을 닦고 우리를 안내했다.

d 자, 자. 브랜든군은 그정도로 놀리고... 자, 어떨까? 오늘 브랜든군의 퇴원 기념 파티로 꽤 신경썼으니, 들어오도록 하게.

m 대디, 무슨 셰프라도 부른 거예요?

d 셰프? 음. 그렇군... 특별한 셰프를 한 분 모셨단다.

b 마리아가 하도 자랑해서, 도대체 어떤 곳일까 싶었는데... 정말 멋진 곳입니다.

b 저도...기대가 됩니다.

m 그렇지? 브랜든, 리무진에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어땠어? 집 안에서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다니...정말 대단하지 않아?

b 응... 정말 놀랐어. 정원도 정말 예쁘고...

d 그렇다면 이 대단한 식사를 맛보는 것이 어떨겠니?

대화하던 중, 우리를 위해 대디는 직접 일어나시더니 멋진 그릇에 담긴 양식들을 갖고오셨다. 척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였다.

d 자, 첫 번째 코스입니다.

m 대디...?

d 간만에 솜씨를 낼 수 있게 되었지 뭐냐, 하하하. 요새는 영 요리할 기회가 없어서.

d 브랜든 군과 마리아를 위하여.... 우리 「패밀리」를 위해서 솜씨를 발휘했다.

m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어디 가 계셨나 했더니!

m 고용인분들도 계시는데...와... 이 요리는 뭔가요?

d 켈리플라워를 마요네즈로 그레이징한 킹크랩이다. 이걸... 벨루떼 소스로 맛을 낸 바닷소라 — 그 위에 성게알을 얹었다.멍게와 키조개로 카르파치오를 곁들였단다.

대디의 요리는 못 셰프에 버금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랑스 요리였다.

요리를 설명하시는 것 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가 너무 많았다..!

평소에도 정갈하고 비싸고 싱싱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는 있었지만... 이런 요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런 요리를 직접 할 줄 아시다니...칼드웰 아저씨는 굉장히 기품있는 분이구나.

m 우와...대단해요.

b 잘, 먹겠습니다.... 이런 대접을 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브랜든은 예의바르게 대디에게 인사하고 한 입 요리를 떠서 먹었다.

b!!!

b 맛있어...!

브랜든답지 않은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맛있다” 라고 말했다...

나도 질 수 없다, 어서 먹어야겠다...!

m ...!!

m 정말... 맛있어!

가볍게 혀 위에서 녹는 게살의 맛, 소라도 전혀 비리지 않고 소스와 잘 어우러진다.

오돌도돌하게 성게알이 씹혀 식감을 자극하고, 전체적인 맛의 조화가 플레이트 내에서 부드럽게 어우러졌다.

m 대디, 대체 이런 요리는 언제 배우신 거예요?

d 한참 조식을 크게 만들어 나갈 때, 아무래도 많은 부분에서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단다.

d 그래서... 그 때부터 각 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단다. 요리도 그 때 배운 거지. 프랑스 경양식이나 이탈리아 요리 등...

d 아, 다음 코스도 준비되어 있으니 천천히 먹거라.

b ...! 또... 있는 건가요!

m 오늘, 각오하고 먹어야겠는데요~

d 하하하! 코스 요리로 대접할테니, 얼마든지 즐겨 줬으면 하네.

m 근데 이 소스...정말 맛있어요. 처음 먹어 보는 맛인데도... 우와, 대디. 저 매일 요리 해 주시면 안 되요?

d 마리아만 여기서 같이 지내 준다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m 와아 — 정말요?

b 마리아에게도 그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m 안전도 좋지만 이 요리가 더 매력적인데....정말 최고야.

b 먹어본 음식 중 제일 맛있습니다.

m 응! 전에 해리랑 다녀왔던 레스토랑의 맛과도 비교 불가능한데.... 정말 맛있어.

d 그렇다면야 다행일세. 사실, 솜씨가 죽은 건 아닐까 내심 걱정했거든.

d 자, 다음 메뉴일세.

d 소고기 한우 안심을 레드 와인에 졸여 찌고, 티오 페페 양파는 오븐에서 구워서 내 와 봤다네. 숙성시킨 그뤼에르 치즈와 트러플을 더한 크림리한 폴렌타와 아키텐 케비어를 곁들여 보았지.

대디가 연이어 내온 요리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훌륭했다.

b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런 걸 제게...

m 정말...대디. 다시 봤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한 입 떠서 먹어 본 요리는 정말로 훌륭했다. 씨푸드로 시작하여, 이번엔 고기의 맛이 입 안에 퍼지면서 와인 향이 식욕을 돋우고, 구운 야채를 곁들이니 더욱 고기맛이 더해졌다.

d 내 자신작일세. 어떨까?

m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맛있어요...

b ...!! !!

브랜든도 입 안에 잔뜩 고기를 넣은 채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b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m 네, 정말로요. 메뉴도 너무 고급스럽고...

m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d 무슨 말이니, 마리아. 네게서 나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받았다. 또...브랜든 군에게는 목숨을 빚졌지.

d 브랜든 군, 다시 한번 감사하지... 정말 옹기있는 행동이었네.

d 자네가 없었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d 마리아를 남겨두고, 나까지 사라져서는 안되지 않겠나.

b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몸이 저절로...

m 응....

b 마리아에게는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 괜찮아. 브랜든도, 대디도....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땐 내가 너무 감정이 앞섰어.

m 다시는 가족을 잃는 경험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대디의 말처럼...

m 그래서 브랜든에게도, 대디에게도...왠지 모르게 화가 나게 된거야.

b 아아.

b 나도 ... 마찬가지로.

b 마리아를 걱정시킬 수는... 없지.

d 하하하. 브랜든 군, 마리아를 잘 부탁하네.

d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브랜든 군이 마리아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된 이후로, 마리아가 더 빨리 이 도시 생활에 적응한 것 같다네.

m 대디도 참, 부끄럽게...그렇지만, 사실이야. 처음 이사를 왔을 때...잘 적응하지 못했었거든. 대학도 어색하고, 그냥 모든게 다 어색하고 불편했을지도 몰라.

m 그러던 와중 친구들을 다시 만나니까, 확실히 생활에 활기가 돌게 되었어.

d 마리아는 브랜든군과 만난 후로 매일 브랜든 군 얘기만 했다네.

b ...!

m !!!

d 저번에 한 번, 마리아를 마음고생 시킨 적도 있다면서? 그 때, 마리아가 매일 나를 붙잡고 얼마나 성화였는지 —

m 대디 —!

얼굴이 벌개진 우리를 뒤로 하고 꺾꺾 웃으며 칼드웰 아저씨는 디저트를 가지러 가셨다.

괜시리 멧쩍어서, 브랜든 쪽을 바라보지 못하겠다.

확실히, 이 도시로 이사와서 브랜든과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서로의 감정이 어긋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더욱 관계가 견고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b 마리아.

m 으..응? 왜, 브랜든. 다 지난 일인걸.

b 아니...그... 마리아만 괜찮다면, 식사 후에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m 으, 으응?

b 마리아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마리아, 오늘은...

b 밤까지 마리아와 함께 있고 싶어.

!!

m 브랜든?! 지금 무슨 —

d 오늘의 디저트는 블랙 트러플. 블랙 트러플 수플레 비스킷입니다. 젊은이들. 오렌지 파프페에 샴페인으로 향과 맛을 더한 퍼지 초콜릿. 느끼할까봐 레몬 머랭과 트러플을 더한 요거트 소르베도 있어요.

m

b

d 응? 또 늙은이가, 방해를 해버린 건가. 이런 — 디저트만 두고 물러날까?

b 아닙니다. 마리아에게...혹시 오늘 이 저택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던 참이었습니다.

m 뭐야, 그런 얘기였나. 난 또 —

b ?

d 하하, 브랜든 군. 마리아는 다른 의미로 알아들은 것 같은데?

b 앗...아니 저는 그...

d 하하하하! 자네들을 보고 있으면, 내 옛날이 생각나는구만. 나도 예전에는 —

m 대디 — 완전 구닥다리 연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d 이런, 마리아. 나도 그래봐도 마리아와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가 나는 건...

b 혹시 연세가...?

d 음...

m ...

d

d 인정합세. 거의 삼촌 뻘이라는 건...

d 으으.

브랜든과 함께 대디에게 가볍게 말장난을 하며 달콤한 디저트를 먹었다.

그렇지만, 이 시간보다 달콤한 디저트가 과연 있을까.

힘든 일이 지나갔지만, 그 덕에 나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배가 터질만큼 음식을 먹자,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m 그래서, 오늘은 무얼 할까?

d 괜찮다면, 늙은이의 취미에 어울려주겠나?

b 물론입니다.

m 대디, 뭘 하시려고요? 체스 두기 같은 건 아니겠죠....

d 그것보다는 좀 더 가정적인 일이지. 브랜든 군, 혹시 낚시를 해본 적은 있나?

b 없습니다.

m 와! 뭇 개천으로 낚시를 나가시려고요?

m 전 좋아요. 따로 나가 살면서... 대디와 낚시를 나간 적이 없었네요.

d 별채 뒤로 흐르는 강이 있다네, 브랜든 군. 그 강에서는 송어가 많이 잡힌다네.

m 응, 그 쪽에 아카시아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운치도 좋아.

b 낚시는 해본 적 없지만 즐거울 것 같습니다.

b 조금,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고 싶기도 하고요.

d 하하, 맛있게 먹어주니 좋구만. 마리아, 먼저 가 있을테니 낚시 도구 몇 가지만 챙겨서 와줄 수 있겠니.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구나.

b 저도 돕겠습니다.

d 마리아 쪽을 따라가는게 낫지 않겠나, 브랜든 군...?

m 아냐, 대디랑 같이 가. 아무리 오늘 퇴원했다고 해도 많이 걸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야.

b 그래도 짐을 마리아 혼자 들게 할 수는...

d 아 — 그렇다면, 키를 줄 테니 운전을 해서 오는 것은 어떻겠는지...? 브랜든 군, 혹시 운전을 할 줄 아는가?

m 브랜든, 아마... 할 줄 모를걸요.

b 죄송...합니다..

m 그렇지만, 나는 졸업하기 전 배웠지!

m 먼 길도 아니니 제가 운전해서 갈게요.

학교를 다니는 도중 칼드웰 아저씨는 내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하셨다.
외국어, 사교 댄스부터 운전까지. 아저씨 역시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셨겠지.
내가 관심가는 분야라면 무엇이든지 배우도록 해 주셨다.
그 때 운전을 배워, 실제로 가끔 학교까지 차를 몰고 다니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브랜든에게 내 운전 솜씨를 좀 보여주는 편도 좋겠지.

d 하하하. 마리아의 운전솜씨라면 내가 보증하지. 브랜든 군을 다시 병원신세 지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 마리아?

m 대디만 빼고 저희끼리 차를 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 키는 이제 저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d 이런! 무서워서 얼른 빠져야겠구나. 마리아, 전에 쓰던 가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 창고에서 찾아보렴.

m 네. 조금 있다 봐요, 대디!

b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브랜든은 대디에게 예의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생각해보면 브랜든은 항상 예의가 있었다.

해리는 좀 더 과장스러운 모습의 예절이라고 한다면 브랜든은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느껴지는 예절이었다.

따로 교육받은 것도 없을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브랜든의 천성 자체가 이런 거겠지. 사람을 존중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거다.

m 흐음...

b 응?

m 브랜든, 대디에게 깽뚫하구나... 싫어서.

b 당연히.

b 마리아의.... 은인 되시는 분이니까.

브랜든은 그렇게 대답하고 묵묵히 앞을 보고 걸었다.

정말로, 그 이유 뿐일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창고로 들어가 낡시용 가방을 챙기고, 주차된 차 중 하나에 탔다.

m 자 — 브랜든 히트 씨, 여기로 앉으시지요.

과장된 몸짓으로 브랜든을 차로 안내했다.

b 마리아, 정말 멋지다.

브랜든은 상기된 얼굴로 차 안을 둘러보고 있다.

b 이런 차는 처음 타는걸.

m 나도 부담스러워서 이 차는 한 번도 몰아보지 못했어. 학교에 타고 다니던 건 저어기 있는 저 중형 세단... 사실, 저것도 꽤 예스럽고 고급스러운 거라서 영 자주 운전하기가 그렇더라구.

b 그렇구나.....그럼 아저씨의 차는 이건가.

m 응? 아니. 여기 있는 차 전부, 대디 거.

b

b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걸.

차의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다.
브랜든은 가만히 앉아서 말을 이어나갔다.

b 마리아는 정말 대단해.

m 아냐, 브랜든이야말로.

b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어.

m 응? 내가?

m 그런가...

m 전과 똑같지 않아? 하긴, 이사오고 나서 좀 세련되 진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브랜든 쪽은, 그렇게까지 크게 변한 건 아닌 것 같아.

b 아아... 마리아라면,

b 전에는 좀 더 소극적인 느낌이었나.

m 내가?!

의외다. 소극적이라면... 브랜든 쪽이 더 그렇지 않나?

m 그랬던가... 언제를 말하는 거야?

b 이사 오기 전. 같이...마을에서 살 때.

b 마리아, 전에는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냥 마음 속에 덮어두기도 하고.

b 좀 더... 마을의 주눅든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느낌이었어.

b 나나, 해리도 마찬가지였는지도 몰라.

b 그렇지만... 이 도시로 건너와서 다시 마리아와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

m 응...하긴. 나도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어.

b 처음?

m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브랜든이랑 다시 만나기 전.

m 아무래도 그 때는 방향도 많이 했어. 잘 적응하지 못했었거든...

m 그렇지만, 브랜든과 해리를 다시 만나고...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m 그러면서 뭐랄까... 나도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아.

m 전에 살던 마을에서는... 우리 서로 많이 서툴었잖아.

b아아.

m 브랜든은,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할 뿐....

m 나도, 그런 브랜든에게 불만 같은 건 없었지.

m 그렇지만... 역시 나는 서로가 대화하지 않으면...

b 응.

b 서로, 이해해 나갈 수 없겠지...

m 브랜든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래...

열린 창으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불을 간지럽혔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브랜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 둘 다 분명 아주 서툰 사람들이다.

브랜든은 과묵한 남자고, 나도... 원래는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인 여자였다.

그렇지만, 이사와서 여러 일들을 겪으며 서로 많이 달라진 것이다.

브랜든에게 먼저 다가가, 브랜든을 추궁해보기도 하고,

브랜든도 나를 항상 찾아오는 등, 생각해보면 정말 원래의 우리답지 않던 행동 뿐이었다.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이렇게나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데도....

m 돌아올 때도, 내가 태워다 데려다 줄게.

그래서, 한 발짝 더 내가 용기내서 다가가기로 했다.

b 마리아가?

m 응, 어때? 운전 실력은 이미 보증받은 것 같은데.

b ...고마워. 그렇다면... 부탁할게.

거의 강가에 가까워져, 차를 근처에 주차시키고 대디가 자리를 편 곳을 찾아 나섰다.
아카시아 꽃이 흐드러진 넓찍한 바위의 위에, 돛자리를 펴고 의자를 펴 둔 대디가 보였다.
따뜻한 날씨와 깨끗한 하늘, 너무나도 달콤한 꽃향기가 어우러졌다.
브랜든도 대디도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졌다.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지금을 영원으로 하고 싶을 정도다.

m 대디, 저희 왔어요.

d 마리아, 브랜든 군! 어서 오게. 자, 앉게 앉아. 브랜든 군에게는 낚시대를 잡는 법 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브랜든은 꾸벅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가지고 즉 풀어놓았다.
몇 개의 낚시대는, 나도 눈에 익다. 처음 여기로 왔을 때, 빅 대디와 함께 쓰던 것들이다.
손에 익은 것을 하나 집어들고, 루어를 끼운 후 가만히 대를 드리웠다.

m 브랜든,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울 건 없어.

d 그래, 마리아처럼 가볍게 던지면 된단다. 그립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고.

m 물고기가 문 것 같으면 가볍게 진동이 오거든. 그 때를 잘 캐치하면 돼.

b 마리아도 자주 낚시를 다닌 건가....

m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몇 번 정도 대디랑 같이.

d 그 때는 마리아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다.... 시간이 흐르자 브랜든 군을 만나러
다닌다고, 이 늙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d 역시, 마리아에게는 브랜든 군이 첫번째일지도 모르겠구나.

대디는 과장된 몸짓으로 눈물을 닦는 척을 하면서 웃으면서 내 쪽을 바라보셨다.

....아저씨는 나와 브랜든에 대해 장난치는 게 과하시다니깐.
한 마디 대꾸해 주자.

menu :

그럼요. 저는 브랜든을 좋아하니까. #brandonpoint+1
글쎄요? 저는 대디가 제일 좋은데요.

#브랜든을 좋아하니까 bp +1

이럴 때는 나도 역공이다.

m 그럼요. 저는 브랜든을 좋아하니까.

b!

d 하하, 마리아. 브랜든 군은 대답이 없는데?

b 저, 저는...

브랜든은 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우물쭈물 대고 있다.

그 모습에 웬지, 놀려주고 싶어져서 말했다.

m 브랜든은 제 제일 친한 친구니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d 허허, 브랜든 군. 그렇다는데?

b 으.....!

#대디가 제일 좋아

이럴 때는 나도 역공이다.

m 글썄요? 저는 대디가 제일 좋은데요.

b ...!

d ...!

d 마리아, 그런...

대디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는 건 또 간만에 본다.

b 마리아, 칼드웰 씨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시는데...

m 부끄러워서 그러셔.

d ...!

#이어집

그런 대화를 하던 도중, 내 낚시대에 입질이 왔다.

m !

m 왔다!

간만에 숨씨나 좀 발휘해 볼 겸, 줄을 힘차게 감아올렸다.

b 마리아, 고기가 문 거야?

m 응! 자, 이렇게 하면 —

d 실력은 여전하구나, 마리아!

실랑이를 하며 줄을 끝까지 감아올리자, 바늘 끝엔 꽤 크기가 크고 윤택한 빛을 내는 송어 한 마리가 있었다.

d 오, 마리아. 대단하구나. 꽤 큰 녀석인걸?

b 마리아... 정말 멋져.

m 에헴. 뭐, 이것도 다 대디에게 배운 거지만요.
m 간만에 나온 낚시지만 괜찮은걸요. 왜 진작 나오지 않았지?
d 그거야, 마리아가 브랜든 군과 만난다고 —
m 아 — 정말! 그 얘기는 이제 그만!

물고기를 통에 담고, 다시 낚싯줄을 조금 더 먼 곳에 던졌다.

아, 그러고 보니...

브랜든과 아저씨가 함께 있는 이 순간, 여러가지 물어볼 일들이 있었다.

빅대디에 대해 물은 경우

해리가 과거에 마리아의 친구들이라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 빅대디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캐묻자 마리아의 안전을 위해 마리아인 친구들에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일을 알선해 줬다고 빅대디가 말합니다.

해리에게, 빅 대디가 전에 자신들을 마을에서 나가도록 도와줬다고 했다.

해리에 대해 물은 경우

해리는 밀레니온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브랜든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저씨에게도 확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

m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미안하지만. 대디, 여쭙볼 게 있어요.

m 브랜든에게도 마찬가지로. 브랜든, 대디...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지?

m 사실대로 말해줘요....

브랜든도 칼드웰 아저씨도 잠시 서로 쳐다보더니, 브랜든 쪽 부터 말을 이었다.

b 해리가 말했던 대로다, 마리아가 그렇게 급히 쫓기듯 이사하게 된 후... 칼드웰 씨는 우리들에게도 신경을 써 주신 거다.

b 사실대로라면... 해리와, 내가 먼저 부탁한 쪽에 가깝지만.

b 나는... 그저 마리아를, 또 해리를 따라가려고 했어.

b 그것 뿐이야.

d ... 그런가. 그렇지만, 브랜든 군은 정말로 훌륭해서... 아, 해리 군도 마찬가지로네.

d 그래서 우리 조직 측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다.

m 그럼, 밀레니온에 대해서도...

해리에 대해 묻지 않은 경우

그렇지만, 해리와 브랜든은 밀레니온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했다.

아저씨에게도 확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

m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미안하지만. 대디, 여쭙볼 게 있어요.

m 브랜든에게도 마찬가지로. 브랜든, 대디...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지?

m 사실대로 말해줘요....

브랜든도 칼드웰 아저씨도 잠시 서로 쳐다보더니, 브랜든 쪽 부터 말을 이었다.

b 해리가 말했던 대로다, 마리아가 그렇게 급히 쫓기듯 이사하게 된 후... 칼드웰 씨는 우리들에게도 신경을 써 주신 거다.

b 사실대로라면... 해리와, 내가 먼저 부탁한 쪽에 가깝지만.

b 나는... 그저 마리아를, 또 해리를 따라가려고 했어.

b 그것 뿐이야.

d ... 그런가. 그렇지만, 브랜든 군은 정말로 훌륭해서... 아, 해리 군도 마찬가지라네.

d 우리 회사 측과 관련된 곳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다.

m 그럼, 밀레니온에 대해서도...

이어짐

b 마리아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d 미안하다, 마리아. 그렇지만 이번 일 처럼... 네 친구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니.

d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와 밀레니온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리 군과 브랜든 군에는 랜디 씨에게 일러 달라고 말했단다.

d 그래서, 둘다 밀레니온이나 나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지.

b 마리아가 알면.... 무서워하지 않을지,

b 혹시나...

b 경멸하지는 않을지.

b 그런 걸 걱정하셨던 거야, 분명.

m

m 응....

m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가족의 일이니까.

m 그리고 나는, 절대 내 가족을 경멸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m 대디도, 브랜든도.... 또 해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

빅대디에 대해 안물은 경우

과거의 마리아의 친구라 해리들을 도와줬다고 빅대디가 말합니다.

브랜든이 칼드웰 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를 물어보지 못했다.

해리에 대해 물은 경우

해리는 밀레니온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

매그리드 컴퍼니라고 말하더니만, 결국 또 조직이었다.

그렇다면 브랜든도 걱정된다. 그는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m 브랜든, 아저씨와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 건가요.

m 단순히, 제가 소개해 준 제 친구.... 인 건 아닌 거죠.

m 사실대로 대답해 주셨으면 해요.

b 마리아, 괜찮다면 내가 말해도 될까.

m 물론이지.

m 마리아가 그렇게 급히 쫓기듯 이사하게 된 후... 칼드웰 씨는 우리들에게도 신경을 써 주신 거다.

b 사실대로라면... 해리와, 내가 먼저 부탁한 쪽에 가깝지만.

b 나는... 그제 마리아를, 또 해리를 따라가려고 했어.
b 그것 뿐이야.
d ... 그런가. 그렇지만, 브랜든 군은 정말로 훌륭해서... 아, 해리 군도 마찬가지라네.
d 그래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게 된 거란다.
m 그럼, 밀레니온에 대해서도...

해리에 대해 묻지 않은 경우

해리도, 브랜든도... 아저씨와 밀레니온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둘 다,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둘은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m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미안하지만. 대디, 여쭙볼 게 있어요.
m 브랜든에게도 마찬가지야. 브랜든, 대디...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했지?
m 사실대로 말해줘요....

브랜든도 칼드웰 아저씨도 잠시 서로 쳐다보더니, 브랜든 쪽 부터 말을 이었다.
b 해리가 말했던 대로다, 마리아가 그렇게 급히 쫓기듯 이사하게 된 후... 칼드웰 씨는 우리들에게도 신경을 써 주신 거다.
b 사실대로라면... 해리와, 내가 먼저 부탁한 쪽에 가깝지만.
b 나는... 그제 마리아를, 또 해리를 따라가려고 했어.
b 그것 뿐이야.
d ... 그런가. 그렇지만, 브랜든 군은 정말로 훌륭해서... 아, 해리 군도 마찬가지라네.
d 우리 회사 측과 관련된 곳으로 들어오게 된 거란다.
m 그럼, 밀레니온에 대해서도...

이어짐

b 마리아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d 미안하다, 마리아. 그렇지만 이번 일 처럼... 네 친구들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니.
d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와 밀레니온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리 군과 브랜든 군에는 랜디 씨에게 일러 달라고 말했단다.
d 그래서, 둘다 밀레니온이나 나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지.
b 마리아가 알면.... 무서워하지 않을지,
b 혹시나...
b 경멸하지는 않을지.
b 그런 걸 걱정하셨던 거야, 분명.
m
m 응....
m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가족의 일이니까.
m 그리고 나는, 절대 내 가족을 경멸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
m 대디도, 브랜든도.... 또 해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믿어.

질문 끝

d 마리아...

b

d 정말로 고맙다. 마리아, 정말로 고마워...

d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마리아.... 브랜든 군에게도....그저 미안할 뿐이다.

b아닙니다.

b 저야 말로...

b저는.

브랜든은 입을 떼려는것을 망설이더니 가만히 입을 닫았다.

b 마리아.

b 대디를 잘 부탁할게.

b들은 대로, 칼드웰 아사기라는 분은... 네 걱정밖에는 없는 분이셔.

m 응...걱정하지 마.

m 나도, 딱히 대디가 조직의 사람이라거나 해서 화를 냈던 게 아냐.

m 내게 솔직히 말해줬으면 했어....

m 직접 사람을 죽인다던지 하는 것도 아니시잖아. 그런데도 내게 숨기다니... 그 점에 화가 났을 뿐이야.

m 가족이잖아?

b

브랜든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대디 쪽을 쳐다본다.

m 설마, 대디.... 사람을...?

d 아냐, 아니란다. 마리아! 그러지는 않고 있어. 지금은... 거의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단다.

b맞아.

b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m 브랜든도, 정말 괜찮은거지?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b 아아.

b 물론.... 그렇지 않아.

b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미안해져서.... 옆에 있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m 브랜든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하... 브랜든, 이상한 걸 걱정하네.

m 매그리드 오일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는 것 뿐인걸? 걱정은 없어.

b

d 마리아, 브랜든 군 이야기 말이다...

b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빅 대디.

d브랜든군이 그렇다면...

그렇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을 숨긴다고 해서, 그것만이 해답인 것은 아니다.

외려 계속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버리는 것이다.

m진작, 말해 줬다면.

m 그랬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예요.

m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으로 겁먹고선 그저 문제를 피하는 것...

m 거기에 화가 난 거니까.

m 결정은, 저. 마리아 아사기가 내리는 거예요.

d 맞아. 마리아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일 아니겠나, 안 그런가. 브랜든 군?

b네.

술술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브랜든에게는 태워다 주겠다고 말해 줬으니, 집까지는 셋이 돌아가고, 그 후에 브랜든을 데려다주면 될 것 같다.

d 그럼, 이만 돌아가는 게 어떨겠나. 어때... 오늘 하루는 즐거웠는지 모르겠네. 브랜든 군의 퇴원 파티 겸 부른 것인데...

b ...그 무엇보다도 값진 하루였습니다.

m 그렇다는데요, 대디?

차에 올라타서 짐을 싣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m 대디, 오늘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특히 그 요리... 다신 잊지 못할 맛이었는데... 대디, 평소에도 대디가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d 마리아만 같이 지내 준다면, 그 정도는 내가 준비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브랜든 군과 함께 놀러오렴.

b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꼭.

m 응! 브랜든,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서 보자.

d 둘이서 나와 어울려 준다면야 이 늙은이에겐 최고의 즐거움이지.

m 정말...대디, 늙은이, 늙은이 하시는데 아직 40대시잖아요 —

b 그렇게...젊은신 건가, 전혀 몰랐습니다.

m ...브랜든, 그거... 칭찬 아닌데!

d 하하하! 괜찮네... 다들 50대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b 그.... 앗. 죄송합니다....

d 그래도, 둘은 이제 20대 중반이니, 나는 늙은이로 비춰지지 않겠어.

b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뻐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m 맞아요, 대디. 브랜든이 집이랑 차고 구경하면서 얼마나 바보같았냐면 —

m 마리아....으...

브랜든에 대한 농담을 하며 우리 셋은 즐겁게 웃었다.

곧 저택에 도착해서 대디를 내려주고, 브랜든을 집까지 내려다주려고 했다.

브랜든은 도시 외곽 쪽에서 지낸다고 했다.

m 여기서 40분 정도 걸리겠네. 피곤하지는 않아? 간만에 밖에 나와서...

m 퇴원하자마자 뭔가 몰아붙인 건 아닐지, 걱정이네.

b 아니야. 나도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싶었어.

b ...그동안, 피치않게 속여온 건 사실이니.

b 말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마리아를 잃을까봐 말하지 않았던 거니까.

m 응.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었구나...

m 브랜든이라면 난 괜찮다 — 그렇게는 생각한 적 없어?

말해버렸다.

사실, 대디건 브랜든이건. 살인마라거나 방화범 같은 것만 아니라면... 나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뿐인 나의 가족 아닌가.

m아니야. 말이 잘못 나왔다.

m 어쨌든... 브랜든,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브랜든도 브랜든을 좀 더 돌보는편이 좋다고 생각해.

b 응.

차를 운전하며 어색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m 자... 이쯤인가, 어디로 가면 돼?

b 여기서 내려줘도 괜찮아.

m 집앞까지 가도 괜찮은데, 혼자서 걸어가게?

b길이 좁아서, 이 차로는 들어가기도 힘들 겐.

m 그런가? 그럼, 오늘은 즐거웠어.

b 응. 정말로.... 앞으로도몇 번, 찾아가도 괜찮을까.

m 당연하지, 브랜든! 대디랑도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나도 고마운걸.

m 그럼, 잘 들어가. 병원 진료는 혹시 모르니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b 응, 마리아.

b 고마웠어.

브랜든은 인사를 하고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브랜든을 바라다주고, 나도 집으로 향했다.

오늘 하루는 참 알차게 보낸 듯 하다.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했던,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돌아가서, 대디에게 요리에 대해 한번 더 칭찬하는것도 잊지 말아야지.

역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서, 서로의 마음을, 기분을,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도.

그렇게 생각하니, 전에 해리와 한 번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게 생각났다.

그 때 해리에게도 조금 낱을 세워 말하기도 했고.... 해리와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어색한 사이가 나아질 지도 모른다.

내일은, 해리에게 시간이 괜찮냐 묻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저택으로 들어갔다.

label harry_character:

#해리 캐릭터 이미지 부분

label harry_yes :

#밀레니온 내의 해리 이미지 부분

#해리에게 밀레니온에 대해 물었을 때는 이 내용도 추가.

--히어로 집필 끝--

레이블 쉼리

쉐리가 저택에 놀러와서 자기와 해리가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며 수줍어한다. 대충 웃어넘기며 축하해주고 그러다가 브랜든과 나의 얘기로 넘어왔는데 난 그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어느 날, 저택에 베어 워큰 아저씨가 딸인 쉼리를 데리고 방문하셨다.
나와 대디는 그들을 마중나가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w 딸이 집에만 있는 것이 심심하다며 친구가 필요하다기에, 마리아 아가씨라면 말동무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데려왔습니다.

d 그거 좋은 생각이군. 마리아, 쉼리에게 방 구경을 시켜주지 않겠니?

m 네. 알겠어요.

w 쉼리, 인사하거라.

s 안녕하세요~ 쉼리라고 해요.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m 응 그랬었지. 나도 잘 부탁해. 쉼리.

다소곳하게 손을 모은 채로 인사하는 모습이지만, 눈빛은 말괄량이 소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눈웃음이 지어졌다.

그걸 본 쉼리는 영문을 몰라 하다가, 이내 같이 웃었다.

d 그럼 우린 이제 들어가도록 할까. 마리아, 쉼리랑 잘 얘기하고 있거라.

w 쉼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리아 아가씨.

m 네. 걱정 마세요 워큰 아저씨.

대디는 워큰과 함께 집무실로, 나는 쉼리와 함께 내 방으로 갔다.

방에 오자마자 쉼리는 수다스러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며, 열심히 자기 소감을 말하며 재잘댔다.

s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 방엔 처음 들어오는데, 무지 깔끔하고 냄새도 좋네요. 무슨 꽃집에 온 것 같았어요.

s 우리 집엔 온통 장작 타는 냄새와 풀 냄새 뿐이라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말이에요.

m 풀 냄새?

s 네. 집에서 난을 몇 종류 키우거든요. 물론 향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난초들을 사랑하셔서 방에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두고 계시는데, 그 특유의 풀냄새들이 섞여서 나는 냄새가 전 정말 싫어요.

s 하지만 여기는 ㅁ

향기를 즐기듯 냄새를 맡으며 말하는 모습이 살짝 과장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모습이 귀여워보여 미소가 지어졌다.

m 그러니? 고마워-. 허브티를 즐겨 마셔서 방에도 허브 향이 났 건가봐.
향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번주에 대디가 새로 얻어온 차를 나눠준 일이 떠올라,
그녀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

m 아, 새로운 차를 들여왔는데, 한 번 마셔 볼래?

그녀에게 새로 산 티세트를 선보였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변하다가,

s 앗,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저번주에 아버지가 해외에 갔다오시다가 사오신 거예요!

m 아아, 정말? 대디가 얻어오신 거라 해서 받았는데, 워큰 아저씨가 가져오신 거였구나-

s

m

s

m

s

s 아아 정말요? 저희 집도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아버지가 워낙에 엄한 분위기를
강조하셔서...

m 호호호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대신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언제든 환영해줄게.

s 네 그래야 겠어요. 오늘 아버지와 담판을 지어서 방 만이라도 이렇게 꾸미고 말 거예요.

s 그러니까 언니~ 저도 방 이렇게 잘 꾸미는 법 좀 알려주세요!

m 응 물론이지.

~기타 패션 얘기(세릴은 화장을 잘하는데 마리아는 패션센스 엘레강스(????) 해서 서로
공유하니 뭐하니 하다가 내남자들-해리는 잘입는거같긴 한데 티셔츠 어느거를 강조하네 해서
눈이 괴롭다 찡찡 마리아는 브랜든 옷센스 목불인견이다 @^#\$& 옷으로 까다가 커버치다가
등등등~

수다를 계속하다가 세릴이 조심스레 얼굴을 붉히며, 화제를 바꿔 이야기를 꺼냈다.

s 아참, 언니, 저 아마 결혼할 지도 몰라요!

m 뭐?? 누구랑?

s 에이 언니도 아시면서- 해리 씨랑 결혼하기로 할 예정이에요.

m 어머, 정말-? 그냥 친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벌써 그렇게까지 발전하다니.

s 처음엔 그냥 친한 오빠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같이 있다보니 점점 마음에 들더라구요.

m 그렇구나 좋겠다~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

s 아버지야 뭐- 제가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시니 괜찮아요. 호호

m 웨딩 드레스는 정했어?

s 아버지는 소소하게 치르자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
드레스만큼은 최고로 이쁜 것으로 하고 싶어요!

m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벌써부터 공주님처럼 보이는데?(웃음)

s 아, 그러고보니 언니는 브랜든 씨랑 결혼 안해요?

m L,나...!?

menu:

무슨 대답을 할까?

“물론, 조만간 할 거야.”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녀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다.

jump yeah

“음.. 그게...”

갑자기 나온 나와의 브랜드의 이야기에 사뭇 놀랐지만,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얼버무리기로 했다.

jump nope

label yeah :

m

s

label nope :

m 음... 우리는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어. 서로 일하기에도 바쁜 걸-

s 에엠틀 그래도 아쉽네요...

m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걸?

m 그보다도, 어떻게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갔는지 궁금해. 알려줘~

s 아아니, 갑자기 그러시면...!

m 해리의 어떤 점이 좋아?

s 음...

m

s

m

s 대신 언니도 말해주세요! 브랜드 씨와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m 그건...

m예전에 대학에 다닐 때, 불한당들에게 둘러싸여 안절부절 못 하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나서
도와줬어.

s ...! 엄청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m 응.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할 지를 몰라서 그저 떨고만 있었는데...

m 그때 브랜드가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어. 난 그때 브랜드가 도우러 온 거라곤 생각지도 못
했는데, 오자마자 불한당 중 한 명에게 바로 발차기를 하며 싸우는데, 정말 놀랐어.

m 아마 그 때가 브랜드가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해.

첫만남 이야기를 하다가, 그 때가 떠올라서 쫓 하고

나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자, 웨리의 눈이 빛나더니 경청 모드로 돌입했다.
그녀의 반응에 부끄러워하면서도, 난 옛 일들을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m 언제나 과묵해서 표현하는 걸 잘 못 보긴 하지만, 그는 나에 대해 언제나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내가 하는 어떤 말도 새겨들어주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s그렇구나...

s 저.. 뭔가 엄청 감동했어요..! 저같은 성격엔 과묵하기만 하면 답답해서 그냥 못
넘어갔겠지만, 언니는 그를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m 하하, 그런가... 고마워.

s 역시, 두 분이 얼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드레스를 입는다면 저보다도 훨씬
예뻐 텐데 말이에요~ 결혼 하실 때 꼭 저도 불러주세요!

m 호호 그래- 꼭 그렇게.

웃으며 얘기하다가 문에서 노크소리가 들리고, 베어워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w 웨리, 일 다 끝났단다. 이제 나올 시간이다.

s 앓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전 이만 가볼게요—

m 그래, 다음에 또 와~

.....

그녀가 가고 난 후, 난 피로감이 몰려와 소파에 걸터앉았다.

하긴... 해리 씨와 그녀가 만나고 나서 날이 갈수록 사이가 부쩍 좋아지는 것 같긴 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방 발전해나갈 줄은 몰랐다. 벌써 결혼이라니,

속에서 뭔가 꿈틀 하는 느낌이 생긴다.

...아마 질투심이겠지.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왜 또 브랜든 얘기를 꺼낸 것일까.

그는 원래 이런 일에 어울릴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서 떠들다니...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새삼 브랜든이 조금 원망스러워지긴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성격이니 무작정 그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

하지만, 그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뿐인 걸까...?

웨리와 해리 씨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로는 발전할 수 없는 걸까..?

레이블 브랜든4

#Mil3 회사가 거대해지고 내가 일하는 장소가 비서직으로 바뀌었다.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주 들려서 기쁘다. 그런데 가끔 어디선가 그의 험담이

들려오는 것 같다. 정정하거나 같이 꺼서 뭐라 하고 싶긴 하지만 나의 지위도 애매해서 그저 속앓이만 하다가 끝.

밀레니온의 성장에 따라 나의 직장도 바뀌어 비서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도 월등히 큰 데다가, 밀레니온의 간부들도 여럿 드나드는 곳이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었다.

물론, 하게 되는 일도 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양도 몇 배는 불어나서 일주일의 반은 야근을 해야 했다.

어차피, 이 곳에 오래 있을 수록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많을 테니,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고, 일도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도 하며 브랜든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 애썼다.

일하면서 주위들은 소식들을 조합하면 — 브랜든은 해리와 함께 승승장구로 직위가 올라가고 있었고, 특히 해리는 밀레니온 내에서도 요주의 인물이라는 평이 나돌고 있었다.

브랜든은 암살 요원들 중 총기 기술에 따로 소질이 있는 멤버들을 모아 ‘트루 그레이브’라는 암살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을 거듭해 이제 밀레니온의 새로운 힘이 상징이 되었고, 심지어 조만간 베어 위크의 ‘오버 킬즈’를 능가하게 될거라는 소문도 돌리고 있었다.

역시 규모가 큰 곳이라 그런지, 일반 회사의 연기를 한다 해도, 밀레니온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물론 그 소문들 중엔 브랜든과 해리의 활약에 관한 소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상사에게 보고를 끝낸 뒤, 회사 건물을 내려가는데, ‘해리’라는 단어가 어디선가 들려오길래 봐봤더니, 밀레니온 직원들의 대화에서 들리길래 조심스레 다가가 엿들었다.

mob 그러고 보니, 해리 맥도웰이란 사람은 패밀리 중에서도 지위가 손에 꼽힌다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위에 있던 사람이 이젠 그에게 벌벌 기어다닌다더군.

mob 패밀리가 된 지 5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성장하다니, 역시 크게 될 놈은 다르다는 건가.

mob 어쨌면 보스 자리도 넘볼 수 있겠는데?!

mob 쏏— 말조심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릴 마음대로 하는 거야.

mob 앗차차.. 그랬지.

mob 상관 없지 않나? 어차피 다들 알고 있을 걸.

mob 그런데 사실, 그 녀석 혼자였다면 그렇게까지 되는 건 불가능했겠지.

mob 그건 또 무슨 소리야?

mob 왜 있잖나, 맨날 옆에 붙어다니는 말없는 녀석.

mob 아아— 브랜든 히트 말인가?

m (브랜든....?!)

‘브랜든’이란 말에 흠칫 한 나는 그들의 근처로 한발짝 더 내디뎌 접근했다.

사실, 들켜도 딱히 할뭇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나에겐 어느것보다도 가장 중대한 문제라 엄청난 긴장감이 날 에워싸고 있었다.

mob 맞아. 그 사람이야.

mob 난 그사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말을 할 수는 있는 건가..?

mob 그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사람은 아마 조직 내에서도 손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하하.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난 왠지모를 분함과 묘한 동질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울컥 튀어나왔다.

그 그룹에 들어가 여러 가지 따지고 싶었지만,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쳐버리면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를 더이상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m (하긴, 브랜든은 워낙에 말수가 적고 과묵해서 나도 그의 목소리가 가끔 가물가물하긴 하지..)

m (하지만,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mob 그 사람은 왠지.. 흑막 같은 느낌이지 않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류일 것 같은데.

mob 아냐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빅 대디가 그를 얼마나 신임하는데— 패밀리 분들 사이에선 거의 신임 보증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냐.

mob 그래도 뒤에서 조종하는 건 해리 쪽이지, 브랜든은 그의 수족 역할로 움직여서 같이 올라간 거야.

mob 음.. 그런가? 하긴, 해리가 일처리 하나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다고 하지.

mob 너무 철저해서 오히려 그에게 잘못 보이기라도 하면 우리 모가지가 날아가는 게 문제지.

mob 그건 좀 소름 돋는군.

mob 무서운 놈이야.

mob 그래도, 난 차기 회장으로 그가 뽑혔으면 좋겠는데 말야. 그 자라면 대디가 있었을 때보다도 밀레니온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

mob 난 이미 그가 차기 회장으로 자리잡힌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야 그렇게까지 수직상승을 할 리가 있겠어?

mob 하하, 듣고 보니 그러네. 이미 정해졌다 이건가.

mob ...그래도 난 왠지 그가 못미더운데.

mob 왜지?

mob 너무 철두철미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단 말이지.

mob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밀밥부터 철저하게 깔아두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지막지하게 연줄과 인맥을 관리해 나가는 걸 보니, 수틀리면 자기 편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인간이야.

h 이야~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고 계실까~?

mob?!?!

mob 아, 아니 ...!

m?!?

갑작스런 해리의 등장으로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고, 나 역시 깜짝 놀라 하마터면 딸꾹질이 나올 뻔했다.

h 일이 있어 들렀다가 내 얘기가 들리길래 와봤지. 칭찬 중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mob 예, 예 저희는....

mob 그런 셈이죠! 하하.

h 그런가? 그렇다면 고맙구만. 자네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힘내라구. 하하하.

mob 예..! 물론입니다.

mob 이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얼른 가봐야겠다.

mob 어어 정말, 쉬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버렸다고! 상사에게 엄청 깨지겠는걸..

mob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무리들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졌고, 해리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가려다 날 발견하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h 오 이게 누구야, 마리아잖아. 진짜 오랜만이다—

m 응, 오랜만이네 해리. 근데 여기엔 무슨 일로..?

h 물론 일 때문이지. 여기저기 사업을 확장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야. 그래도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카페에 가서 잠깐 얘기나 할까?

m 난 괜찮지만.. 많이 바빠 보이던데, 괜찮아?

h 나야 상관 없지! 없으면 만들면 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건데 이정도의 시간도 못 써서야~ 하하.

우리 둘은 사내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못 본 지 시간이 적지않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의 수다스러움은 여전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제법 분위기가 잡혔다고 하던데, 나나 브랜든처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 한해서는 원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하다가 살을 붙여 마치 일대기를 읽듯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의 이야기를 반쯤 듣고 반쯤 흘리며 대하고 있었다.

그러다 대뜸, 그가 나의 회사생활에 대해 말을 꺼냈다.

h 그러고보니 마리아, 일하는 부서를 옮겼다고 했잖아. 어때? 괜찮은 것 같아?

m 음.. 그럭저럭?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지낼 만 해.

h 다니는데 힘들진 않고? 누가 괴롭힌다거나— 그러면 숨기지 말고 털어놔도 돼.

m 난 괜찮아. 일의 양만 좀 많아진것 뿐이니까. 회사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h 만약에 어려워지면 말만 해. 내가 해결해줄게. 이 건물 사장 분이 나랑 절친이거든.

m 하하, 괜찮아. 그보다.. 아까전 뒷담 들은 거야..?

h 아아— 그거? 아하하하, 뒤에서 녀석들이 뭐라 하든 상관 없어. 그만큼 내가 앞서있다는 뜻이니까.

m 그래..

h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옆에 있을 줄은 몰랐는데? 거기서 뭘 엿들은 걸까~?

m 앗 그,그건...

h 뭐— 보나마나, 브랜든 얘기겠지?

난 대답 대신,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m ...브랜든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면 그 수밖에 없잖아. 브랜든과 직접 대화하고 싶긴 하지만, 그는 요새 만나주긴 커녕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내가 그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건 이런 소문들 뿐인 걸.

h 흠... 보기 너무 안쓰러워서 나도 도와주고 싶긴 한데, 녀석에게도 사정이란 것이 있으니까. 게다가 정말 우린 눈코 뜰 새조차 없이 바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았으면 해.

m 응.. 그건 알고 있어. 언제까지나 기다릴 테니까.

억지 미소를 짓는 날 보며, 그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을 꺼냈다.

h 그래도 너무 오래 되면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을 테니까, 브랜든에겐 내가 잘 연락해둘게. 다음에 한 번 만나달라고 말이야—

m ...! 정말? ...하지만 방해가 되는 건 아닐지..

h 연락만 하는 건데 뭘— 그리고 브랜든 녀석,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해주는데 말야. 이렇게 기다리게만 하다가 올리기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둘거야.

나를 위해 과장하듯 으르렁대는 그의 행동에 웃음이 나왔다.

m 쫓, 정말 고마워.

h 별말씀을~ 그럼 이만 가볼게. 나중에 봐.

m 응. 다음에 봐.

해리와 헤어지고, 남은 마저 다 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해가 저있었다.

씻고 난 후, 자려고 누워있다가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봤다.

이제 브랜든과 만나지 않은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에 관해서 들려오는 건 오늘처럼 주변인이 떠들어대는 무성한 소문들 뿐.

충격 사건 이후로, 해리와 웨리의 결혼식 날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걸 마지막으로 그가 직접 모습을 보인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면 하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는 자신의 직업때문에, 조직의 뒷감당을 맡는다는 죄책감때문에 날 보러 오지 않는 걸까?

난 전혀 상관 없으니, 부디 한 번이라도 그를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가 볼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아 닦아보니, 어느새 눈물이 흘러나와 베갯잇을 적시고 있었다.

m 아... 또 이러네.

m 저녁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와버리고. 큰일이야.

밤에 자기 전마다 그의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눈물이 흘러 있다.

차라리 세월에 깎여 무뎌지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날이 갈수록 브랜든을 향한 그리움은 오히려 강해지기만 하고, 그 그리움은 밤만 되면 이렇게 마음을 공격하며 주체없이 눈물만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m 이러다간 베개에 자국이라도 생기겠어. 얼른 지워내야겠다.

서둘러 눈물을 닦고, 혹시나 자다가 또다시 흐를까 베개 위에 손수건을 추가로 덮어둔 채, 간신히 잠이 들었다.

#Mil4 from 13화. 발렌티나 호텔 뒤편에서 대기하라는 빅대디의 말을 듣고 두근거리면서 대기중.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다가 브랜든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브랜든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내 모습이 신경쓰였는지, 빅대디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다.

d 너의 브랜든을 위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계속 걱정만 하고 있다가는 몸도 마음도 상하게 마련이란단.

d 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줄테니, 친구처럼이라도 지낼 수 있지 않겠니?

m 하지만..! 저에겐 오직 브랜든 뿐인걸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같은 건...
d 물론 알고 있단다. 그저 가볍게 대화나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니, 한 번만 만나볼 수 없겠니?
m알겠어요. 대디.

난 괜찮다며 만류했지만, 대디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다.

대디가 말한 날 당일, 발렌티나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간단한 식사를 하고, 홀에서 몇 곡 추기로 했다.

실내이긴 했지만 제법 추워서 드레스 위에 술을 걸치고 나왔는데, 아주 잘 한 선택이었다.

브랜든에게 선물받은 루비 귀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며 지나가서 기분이 좋았다.

브랜든,

사교계도 자주 다니셨던 모양인지, 춤동작을 리드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품있어 보였다.

그에 따라 나의 동작도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스텝을 밟아나갔고, 우리는 여느 커플에 뒤지지 않을 멋진 춤동작을 보이고 있었다.

춤을 추다가 예전에 브랜든과 함께 춤을 췄던 기억이 떠올라 울컥했지만, 날 위해 이런 장소까지 마련해준 대디에게 눈물은 보일 수 없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으며 그와 함께 춤을 계속했다.

저녁을 먹은 후, 빅대디는 그를 데려오겠다며 잠시 모습을 비웠다.

난 누굴까 하는 생각에 기대와 초조함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한 데다가, 춤을 추고 난 직후라 더운 느낌이 들어, 술을 벗고 의자에 앉았다.

너무 열심히 움직였나, 춤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아 손부채질을 하다가, 너무 소란 피우는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잠시 뒤, 조금 진정이 되자, 소개받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한번 만나보겠다고는 말했지만, 나에겐 브랜든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온다 해도 정중히 거절해야겠다 생각하고 거절 멘트를 고심하고 있었다.

곧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등장한 이는... 브랜든이었다.

대디가 걱정하는 날 위해 브랜든을 데리고 와준 것일까...?

난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꺼냈다.

m 오랜만이네

b

m 만나고 싶었어. 브랜든.

b

그는 대답 대신 침묵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급해진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m 일... 바쁜 거야?

b 그런 대로.

m 해리와는 잘 지내고 있어?

b 응.

m 싸움 같은 건 안 하고?

b 응.

m 위험한 일 같은 건... 하지 않고?

b 응.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불편함을 느끼며, 같이 앉는 것을 권유해보았다.

m 저기, 앉아서 얘기하지 않을래?

b 아니. 괜찮아.

m 바쁜 거야..?

b 응.

m 그렇구나...

간신히 이어왔던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대로 더 있다간 브랜든이 가버릴 것만 같아, 필사적으로 대화 소재를 찾았다.

m 아 맞다. 선물.. 고마워.

b 어?

m 이 귀걸이, 2년 전(혹은 저번달?)에 브랜든이 사준 거잖아.

m 어때, 어울려..?

b 응.

m 정말?

b 응

‘응’이란 대답만 하는 그는, 영혼이 없어보였다.

난 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은, 날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조급해진 나는 브랜든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m 부탁이야. 좀더 잘 봐줘..!

b

m 난 브랜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조금이라도 좋으니,

b 특별히 없어.

m

매몰찬 그의 말에, 내 표정은 굳어만 갔다.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해도, 그는 그저 단답식으로만 반응할 뿐,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잠시 가만히 있던 그는, 시계를 본 후 갈 채비를 한다.

b 미안, 일이 있어서.

아무 미련도 없이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를 무작정 불러세웠다.

m 기다려!

그를 향한 마음이 터질 듯이 흘러나와, 나도 모르게 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었다.

m 난... 난 당신이... 난... 나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춰 내 말을 듣고 있던 그가 돌연, 뒤돌아서서 가슴속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것은 총이었다.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난 흠칫 멈춰섰다.

b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m

b 살인 청부업자. 난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일에 몸담고 있어.

b 난... 이제 너와는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럴 자격같은 건... 내겐 없어.

m!

menu:

“얼어붙어있는 채 가만히 있다.”

너무나도 차가운 그의 말투에, 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브랜든은 경직되어 아무 말도 못 하는 날 보다가, 이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결국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jump no_hold

“대꾸한다.” #brandonpoint

속에서 뭔가 울컥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그 감정의 정체는...

jump #BLISS

label no_hold :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울컥 하는 마음과 함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나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바보같은 나. 어째서 그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못 하는 걸까.

— 잠시후, 빅대디가 위로라도 하려는 듯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d마리아..

m 흑..으흑.....흐으읍..

대디는 형용할 수 없는 안쓰러운 얼굴로 날 바라보다가, 자리를 피해주려는 듯 뒤돌아섰다.

하지만 나에겐, 그도 브랜든처럼 떠나버리는 것 같이 보였다.

m 가지 말아요....!

난 울먹이다가도, 필사적으로 그를 잡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대디는 다시 뒤돌아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을 잡은 나는, 또다시 흘러나오는 서글픈 감정에 휩싸여 오열을 하고 말았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나의 등을 토닥여주었다.

이윽고, 울음 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d 마리아, 이만 저택으로 돌아가자꾸나.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호텔에서 나올때, 난 기운이 없는 나머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결국 그가 나를 부축하며 차에 태워주었고, 차는 곧장 저택으로 향했다.

대디는 운전하는 동안 나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었고, 나 역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의 충격을 겪은 난, 말할 기운은 커녕 사고회로 자체가 멈춰버려, 어떤 말에도 대답할 의지가 없었고,

다정한 대디는 그런 나의 상태를 잘 알았기에,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을 것이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는 나를 소파에 앉혀놓고, 손수 따뜻한 우유를 내왔다.

d 자. 이걸 먹으렴. 조금은 안정이 될 거야.

m ...감사합니다.

우유를 받아 한 모금 마셔보니, 달달한 맛이 우러나와 입안을 맴돌았다.

m 이건....?

d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단 것이 제일이라고 하더구나. 실컷 울었으니 기력도 달릴 테고, 기운을 차릴 만한 것을 생각하다가 우유에 꿀을 타보았단다. 어더니?

m ...맛있어요.

d 다행이구나.

m

d

m 아무 것도.. 묻지 않으시나요..?

d 너희 둘의 일인데 내가 감히 무엇을 말할 수 있겠니. 난 단지..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구나.

m 네...

대디는 언제나처럼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날 위해 순수하게 같이 슬퍼해주신다.

대디는 어째서,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일까.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돌아가신 삼촌의 책무를 잇기 위해서라지만, 대디는 그 이상으로 다정하게 해주신다.

마치, 아버지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생각에까지 도달하자, 새삼 삼촌 생각이 났다.

돌아가신 삼촌과 같이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자 또 눈물이 왈칵 나와, 난 급히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쳐냈다.

d 숨길 필요 없단다.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

m 죄송해요..

d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다.

대디의 말에 난 또다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고, 그는 나의 어깨를 감싸며 토닥여주었다.

이후 긴 시간동안 같이 앉아있다가— 나의 울음이 그치고 어깨의 떨림이 잦아들 때쯤, 그는 일어날 준비를 하였다.

d 오늘은 아무 생각 하지 말고, 자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자꾸나.

d 난 이만 들어가보마. 마음이 추슬러지면 바로 잠들도록 하고. 잘 자거라.

m

대디는 바로 잠들라고 했지만, 난 오늘 절대로 잠에 들지 못 할 것 같았다.

적어도, 오늘 밤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겐, 대디밖에 없었다.

난 아무 말 없이 그의 웃기를 잡았다.

d ...?

m ...대디..

d 왜그러니 마리아.

m 저.. 대디와 같이 있고 싶어요.

d 잠이 오지 않는 거니?

m ..그건 아닌데..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d 으음, 큰일이구나..

m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다.

대디는 잠시 주저하다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d 그렇다면.. 내 방에서 같이 있을까? 난 아직 일이 조금 남아있으니, 마리아가 잘 때까지는 같이 있어줄 수 있단다.

m 염치없지만... 그래도 될까요...?

d 그래. 그럼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대디는 나를 일으켜세워 그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서류 봉치들이 책상 위에 쌓여있었고, 그는 날 그의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목 위까지 덮어준 후, 책상으로 돌아가 쌓인 업무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도, 집에서도, 그는 매우 바쁜 듯 했다.

회장이라는 직책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이 쉽사리 감기지 않아, 그가 일하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멍뚱멍뚱 보고만 있는 날 눈치채고, 그가 말을 걸었다.

d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m

d 네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주마. 자고 일어나면 오늘 일은 악몽처럼 사라질 게야.

m 네.. 감사해요.

그는 결국 침대맡에 앉아, 내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곧이어 자장가라도 부르는 듯 조곤조곤 속삭여주는 대디의 말들 하나하나가 마치 수면제라도 되는 양, 안심이 되면서 정말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

정말로 아빠의 품에 있는 듯한, 기분 좋은 포근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다.

---- 원래 썼던 내용 ----

#스탠딩 일러스트 변경지점

#마리아, 해리, 브랜든 모두 나이를 먹은 상태.

#Mil1 브랜든의 회사 내 지위가 올라간 것 같다.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정장을 입기 시작했다. 빅대디와 낚시를 하러 가는데 1박 하고 가라고 할까 말까?

회사에 일이 있어 들렀다가 브랜든과 닮은 얼굴의 사람이 있어 눈을 돌렸다.

그러다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왁스로 전부 뒤로 넘긴 머리(올빱)에 처음 보는 안경까지 끼고 있었다.

안경.. 어색하다더니 결국 끼고 다니는구나.

혹시 눈이 안 좋아진 건가? 그렇다면 걱정인데..

전혀 새로워진 그의 모습에 나는 눈을 떼지 못 하다가, 이 곳이 공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이내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갈 길을 갔다.

그의 변한 모습에 괜스리 설레어 몇 번을 뒤돌아보다가도 왠지 봐선 안 될 것을 본 듯한 느낌에 서둘러 고개를 돌려버리고 만다.

그 주 주말, 브랜든이 놀러왔다.

말썽한 정장에 안경, 머리 모양까지, 회사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일이 정리되고 쉴 틈이 생겨 휴가를 쓰고 빅대디와 낚시를 하러 왔다고 한다.

물론 진짜 목적은 날 만나는 데에 있다고, 그가 눈빛으로 말하는 듯 했다.

셋이서 식사를 하고, 빅대디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나와 브랜든은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할 수 있었다.

m 머리는 어떻게 바꾼 거야? 전이랑 모습이 무지 달라져서 놀랐어.

b 아, 미안.. 이상해?

m 아니, 전혀. 정말 잘 어울려.
b 그래... 다행이다.
m 그나저나 안경 결국 하나 맞췄나보네. 눈이 안 좋아진 거야?
b 아니, 일하는 데에 필요하게 돼서, 하나 샀어.
m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b 응.
m 휴가라면— 언제까지 쉬는 거야?
b 음.. 내일까지 쉴 수 있을 거야.
m 그렇구나...

내일까지라면 이 저택에 하루 정도는 묵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를 잡고 싶어졌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와 더 오랫동안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만나지 못한 탓일까, 그를 잡고 싶다는 생각은 충동이 되어가기 시작한다.

어떻게 할까?

menu:

하루 묵었다 가라고 한다 #brandonpoint +

m 오늘은 하루 묵었다 가. 어차피 휴가니까 그동안 못 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b 음....
m 응? 브랜든- 난 브랜든과 더 얘기하고 싶어.
b그래. 그렇게

그의 대답과 동시에, 내 입가에선 미소가 확 피어올랐다.
갑작스런 표정 변화에 브랜든이 날 보다가 멈칫 하더니, 곧 발그레한 홍조가 생겼다.

티타임 후 몇 시간 전, 난 주방에 들어가서 도우미들과 함께 요리 준비를 했다.
이 저택에 온 후, 나를 위해 매번 신경써주시는 대디를 위해 티타임 정도는 준비한 적이 있지만, 직접 요리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m 브랜든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니까, 오늘은 내가 힘 좀 써봐야지.

저녁 시간이 되어 저택 식당에 대디와 브랜든이 차례로 앉았고, 나는 몇 분 후에 주방에서 나와 앉았다.
평상시보다 많은,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대디가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d 마리아, 이것들 전부 네가 한 거니?
m 네. 오늘 요리는 특별히 제가 신경써서 해봤어요. 맛이 어떨 지는 모르겠네요. 호호.
d 오오 정말 대단하구나. 브랜든, 자네를 위한 만찬이니 한마디 해보게나.
b 하하... 그러게요. 정말 고마워.
m 별말씀을. 다들 마음껏 드세요.

저녁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얘기하다가 해가 저물자, 슬슬 잘 준비에 들어갔다.
대디는 브랜든에게 방을 안내해준 뒤, 모두에게 밤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방에서 잘 준비를 하다가, 문득 브랜든이 떠올랐다.

m 브랜든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방에 잘 있으려나?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그의 방으로 가보았다.

살며시 문을 열고 기웃거리려보았더니, 나의 기척을 눈치채고 브랜든이 문쪽으로 다가왔다.

b 마리아...?

m 어,어 브랜든, 안 자고 있었구나.

b 무슨 일이야?

m 그냥... 방에 잘 있나 하고.

b?

m 아 맞다. 저녁 음식은 괜찮았어?

b 응. 맛있었어.

m 다행이다. 오늘은 일 생각 하지 말고 푹 쉬어.

b 그래. 마리아도 잘 자.

m 응...

인사는 끝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돌아가지 못 하고 계속 머뭇거리며 서있자 브랜든이 의아해하며 묻는다.

m

b ..마리아...?

m 저기... 사실...

b?

m 나.. 브랜든이랑 좀더 얘기하고 싶어.

b 음.. 하지만 밤이 깊었는데, 괜찮아?

m 응. 브랜든과 같이 있으면 피로도 날아가는 느낌이거든 — 그러니까 분명 괜찮을 거야.

b 하지만, 난 말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게다가 빅 대디도 계시고.

m 그런 건 상관 없어.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되니까... 응? 브랜든 —

b그래. 같이 있어 줄게.

m 정말? 고마워

나의 애원 섞인 부탁에 브랜든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나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난 기쁜 마음에 그의 품으로 바로 뛰어들 뻔했지만, 밤이라 그런지 왠지 쑥스러운 기분이 들어
얇전히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난 그에게 내가 겪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과 브랜든과 연락이 없었을 동안 조심스레 상상만
하던 생각들을 말했고, 그에게도 나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물어봤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면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었다.

비록 그의 직업 관련한 이야기는 빠져있었지만, 그가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했다.

그렇게 둘이서 대화를 하다 보니 벌써 밤이 깊어버렸다.

마음 같아선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침이 되어 둘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대디에게
들키면 안 되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난 내 방으로 돌아갔다.

몇 시간 뒤 아침이 되었고, 식사 후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다는 내 말에, 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가 차를 탄 후, 그의 차가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난 손을 흔들며, 그와의 다음 만남이 오기를 바랐다.

말없이 그냥 보낸다
하지만.... 그는 요새 무지 바쁜 사람이고, 나만의 욕심 때문에 그를 잡아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끝내 입밖으로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래도, 붙잡지는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했기에 —
그에게 저녁까지만 같이 있자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다.
그러자 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해주었다.

저녁을 먹고, 잠깐의 이야기를 더 한 후, 해질녘이 되어 그는 일어섰다.
문 밖까지 배웅해주고, 다음에 또 보자며 시선을 교환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쳤다.
차를 타고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꼭 잡고 말리라 하고,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다짐을 또다시 반복한다.

**#Mil2 쉐리가 저택에 놀러와서 자기와 해리가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며 수줍어한다.
대충 웃어넘기며 축하해주고 그러다가 브랜든과 나의 얘기로 넘어왔는데 난 그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어느 날, 저택에 베어 워큰 아저씨가 딸인 쉐리를 데리고 방문하셨다.
나와 대디는 그들을 마중나가 서로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대디는 워큰과 함께 집무실로, 나는 세릴과 함께 내 방으로 갔다.

방에 오자마자 세릴은 수다스러웠다.

s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언니 방엔 처음 들어오는데 무지 깔끔하고 냄새도 좋네요~

향기를 즐기듯 냄새를 맡으며 말하는 모습이 살짝 과장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모습이 귀여워보여 미소가 지어졌다.

m 그러니? 고마워-.

s 저희 집도 이렇게 꾸미고 싶은데 아버지가 워낙에 엄한 분위기를 강조하셔서...

m 호호호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 대신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언제든 환영해줄게.

s 네 그래야 겠어요. 방 만이라도 이렇게 꾸미는 법 좀 알려주세요!

m 응 물론이지~

수다를 계속하다가 세릴이 조심스레 얼굴을 붉히며, 화제를 바꿔 이야기를 꺼냈다.

s 아참, 언니, 저 아마 결혼할 지도 몰라요!

m 뭐?? 누구랑?

s 에이 언니도 아시면서- 해리 씨랑 결혼하기로 할 예정이에요.

m 어머, 정말-? 그냥 친한 사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벌써 그렇게까지 발전하다니.
s 처음엔 그냥 친한 오빠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같이 있다보니 점점 마음에 들더라구요.
m 그렇구나 좋겠다~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
s 아버지야 뭐- 제가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시니 괜찮아요. 호호
m 웨딩 드레스는 정했어?
s 아버지는 소소하게 치르자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
드레스만큼은 최고로 이쁜 것으로 하고 싶어요!
m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벌써부터 공주님처럼 보이는데?(웃음)
s 아, 그러고보니 언니는 브랜든 씨랑 결혼 안해요?
m ㄴ,나...!?

갑자기 나온 나와의 브랜든의 이야기에 사뭇 놀랐지만,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얼버무리기로 했다.

s 네- 언니와 브랜든 씨는 저와 해리 씨보다도 더욱 오래된 사이잖아요,
s 그 정도면 벌써 결혼하고도 남았을텐데 얘기가 하나도 안나와서 의아했어요.
m 음... 우리는 결혼할 생각은 아직 없어. 서로 일하기에도 바쁜걸-
s 에엏 그래도 아쉽네요...
m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가까운걸?
s 역시 그럴겠네요! 그런데 언니가 드레스 입으면 저보다도 훨씬 이쁠텐데 말이에요~ 결혼
하실때 꼭 저도 불러주세요!
m 호호 그래- 꼭 그렇게.

얘기하다가 문에서 노크소리가 들리고, 베어워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s 앗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전 이만 가볼게요~
m 그래, 다음에 또 와~

그녀가 가고 난 후, 난 피로감이 몰려와 소파에 걸터앉았다.
하긴... 해리 씨와 그녀가 만나고 나서 날이 갈수록 사이가 부쩍 좋아지는 것 같긴 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금방 발전해나갈 줄은 몰랐다. 벌써 결혼이라니,
속에서 뭔가 꿈틀 하는 느낌이 생긴다.
...아마 질투심이겠지.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왜 또 브랜든 얘기를 꺼낸 것일까.

그는 원래 이런 일에 어울릴 사람이 아닌데, 괜히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서 떠들다니...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새삼 브랜든이 조금 원망스러워지긴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성격이니 무작정 그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
하지만, 그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뿐인 걸까...?
쉐리와 해리 씨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관계로는 발전할 수 없는 걸까..?

#Mil3 회사가 거대해지고 내가 일하는 장소가 비서직으로 바뀌었다. 들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더 자주 들리는데 험담도 만만치 않게 들려온다. 싸우고 싶긴
 하지만 나의 지위도 애매해서 그저 속앓이만 하다가 빅대디에게 쏟아내는 게 끝.

브랜든과 해리의 활약에 관한 소식들이 밀레니온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들 덕에 밀레니온이 해외에까지 진출하고, 시장의 퀄리티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며 칭찬하는 무리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는 그들 둘이 무슨 음모를 꾸밀 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무리 등,
여러가지 시선이 섞인 소문들이 오가고 있다.

밀레니온의 성장에 따라 나의 직장도 바뀌어 비서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도 월등히 큰 데다가, 밀레니온의 간부들도 여럿 드나드는 곳이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었다.
난 이 곳에서 오래 머물며, 브랜든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 애썼다.

브랜든은 해리와 함께 승승장구로 직위가 올라가고 있었고, 특히 해리는 밀레니온 내에서도 요주의 인물이라는 평이 나돌고 있었다.
브랜든은 총기 기술에 따로 소질이 있는 멤버들을 모아 ‘트루 그레이브’라는 암살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을 거듭해 이제 밀레니온의 새로운 힘이 상징이 되었고, 조만간 베어 워큰의 ‘오버 킬즈’를 능가하게 될거라는 소문도 돌리고 있었다.

이제 브랜든과 만나지 않은 지 어언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에게서 들려오는 건 주변인이 만드는 무성한 소문들 뿐.
그가 직접 모습을 보인다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다면 하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
설마 그는 자신의 직업때문에, 조직의 뒷감당을 맡는다는 죄책감때문에 날 보러 오지 않는 걸까?
난 전혀 상관 없으니, 부디 한 번이라도 그를 봤으면 좋겠는데....

#Mil4 from 13화. 발렌티나 호텔 뒤쪽에서 대기하라는 빅대디의 말을 듣고 두근거리면서 대기중.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하다가 브랜든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브랜든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낌새를 눈치채셨는지, 빅대디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다.

d 너의 브랜든을 위한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계속 걱정만 하고 있다가는 몸도 마음도 상하게 마련이란다.
d 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줄테니,
m 하지만..! 저에겐 오직 브랜든 뿐인걸요.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같은 건..
d 물론 알고 있단다. 그저 가볍게 대화나 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니, 한 번만 만나볼 수 없겠니?
m알겠어요. 대디.

난 괜찮다며 만류했지만, 대디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기에,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다.

대디가 말한 날 당일, 발렌티나 호텔에서 저녁을 먹은 후, 빅대디는 그를 데려오겠다고 잠시 모습을 비웠다.

난 누굴까 하는 생각에 기대와 초조함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번 만나보겠다고는 했지만 나에겐 브랜든밖에 없으니, 누가 들어온다 해도 정중히 거절해야겠다 생각하고 거절 멘트를 고심하고 있었다.

곧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등장한 이는... 브랜든이었다.
대디가 걱정하는 날 위해 브랜든을 데리고 와준 것이었다.
난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꺼냈다.

m 오랜만이네
b
m 만나고 싶었어. 브랜든.
b
그는 대답 대신 침묵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조급해진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m 일... 바쁜 거야?
b 그런 대로.
m 해리와는 잘 지내고 있어?
b 응.
m 싸움 같은 건 안 하고?
b 응.
m 위험한 일 같은 건... 하지 않고?
b 응.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불편함을 느끼며, 같이 앉는 것을 권유해보았다.

m 저기, 앉아서 얘기하지 않을래?
b 아니. 괜찮아.
m 바쁜 거야..?
b 응.
m 그렇구나...

간신히 이어왔던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대로 더 있다간 브랜든이 가버릴 것만 같아, 필사적으로 대화 소재를 찾았다.

m 선물.. 고마워.
b 어?
m 이 옷.. 브랜든이 선물해준 거잖아. 어때, 어울려?
b 응.
m 정말?
b 응

‘응’이란 대답만 하는 그는, 영혼이 없어보였다.
난 그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금은, 날 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조급해진 나는 브랜든에게 조르기 시작했다.

m 부탁이야. 좀더 잘 봐줘..!

b

m 난 브랜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조금이라도 좋으니,

b 특별히 없어.

m

매몰찬 그의 말에, 내 표정은 굳어만 갔다.

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해도, 그는 그저 단답식으로만 반응할 뿐,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어 보인다.

잠시 가만히 있던 그는, 시계를 본 후 갈 준비를 한다.

b 미안, 일이 있어서.

아무 미련도 없이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를 무작정 불러세웠다.

m 기다려!

그를 향한 마음이 터질 듯이 흘러나와, 나도 모르게 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고 있었다.

m 난... 난 당신이... 난... 나는..!

문 바로 앞에서 멈춰 내 말을 듣고 있던 그가 돌연, 뒤돌아서서 가슴속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그것은 총이었다.

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난 흠칫 멈춰섰다.

b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m

b 살인 청부업자. 난 세상에서 제일 추악한 일에 몸담고 있어.

b 난... 이제 너와는 어울릴 수가 없어. 그럴 자격같은 건... 내겐 없어.

m!

menu:

“얼어붙어있는 채 가만히 있는다.”

너무나도 차가운 그의 말투에, 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브랜든은 경직되어 아무 말도 못 하는 날 보다가, 이내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결국 그를 붙잡을 수는 없었다.

jump no_hold

“대꾸한다.” #brandonpoint

속에서 뭔가 울컥 하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그 감정의 정체는...

jump yes_hold

label no_hold :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울컥 하는 마음과 함께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쳐나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바보같은 나. 어째서 그에게 단 한 마디도 하지 못 하는 걸까.

— 잠시후, 빅대디가 위로라도 하려는 듯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d마리아..

m 흑..으흑.....흐으읍..

대디는 형용할 수 없는 안쓰러운 얼굴로 날 바라보다가, 자리를 피해주려는 듯 뒤돌아섰다.

하지만 나에겐, 그도 브랜든처럼 떠나버리는 것 같이 보였다.

m 가지 말아요.....!

난 울먹이다가도, 필사적으로 그를 잡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대디는 다시 뒤돌아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을 잡은 나는, 또다시 흘러나오는 서글픈 감정에 휩싸여 오열을 하고 말았다.

#GUNGRAVE

#Mil5 해리와 브랜든은 갈수록 바빠져 거의 몇 달~몇년 저택에 오는 일이 없고, 나 또한 대디와 함께 이러저러한 사무적 일을 해나간다. 그러다 둘이 시간적 짬&업무 관련 일로 빅대디와 같이 식사를 한다. 난 빅대디 옆에 앉는다. 해리는 놀란 눈치지만 브랜든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듯?

~몇달 후, 브랜든과 해리가 저택에 들렀는데 저녁식사시간에 나는 빅대디의 옆에 앉는다-브랜든은 아무렇지 않아하는데 해리는 놀란듯한 눈치, 하지만 난 속이 안좋아져서 먹다가 나와버리고, 이따가 산책겸 나가다가 브랜든을 발견, 같이 걸어가는데 내가 대디가 날 지켜주고 있어. 든든해.라고 하는데 그는 다행이라고 말한다. 난 속으로 분통터진다 ㅏㅏㅏ~

#Mil6 빅대디가 은퇴하기 전 다음 회장 후보를 뽑는데 해리가 아닌 다른사람을 택했다. 그런데 해리는 분노하지 않았다고 빅대디에게 전해들었다. 그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듯 한데, 묘하게 뭔가가 거슬린다.

~빅대디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술술 경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술술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리를 바로 뽑기에는 미심쩍어 다른 패밀리 중 신뢰가 깊은 사람을 뽑기로 한다. 그리고 회의 당일, 그를 뽑았는데- 좌중은 당연히 해리가 뽑히겠거니 생각했다가 다른 결과에 술렁이는데 해리는 [‘이 자가 날 시험하는건가’란 맘으로 얼굴 일그러뜨렸다가 다시 온전한 표정으로 박수/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박수를 보낸다.]~

#Mil7 요새 밀레니온이 이상하다. 간부가 한명씩 계속 죽고, 회장 당선자는 결국 사퇴하겠다고 했다. 대디가 근심걱정에 빠져있다. 덩달아 해리의 근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빅대디가 그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랜디 아저씨가 살해당했다.
그의 장례식에 가니, 간부들과 함께 그의 아내는 상심이 큰지, 그가 올 시간인데...라며 중얼거리고 있다.
그런 그녀를 쉼리가 말리고 있다.
장례식 후, 집에 돌아오니 이번엔 대디가 무지 상심한 듯.
간신히 말로 여차저차 하고 위로하기&안아주기 해서 안심시킴
해리의 말로는 그가 배신을 할 낌새가 있어 처단하였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는 모양이다.
그 다음주는 다른 간부, 그 이튿날은 또다른 간부가 배신을 빌미로 살해당한다.
대디는 멘붕하고 마리아는 그를 위로하는데 애를 먹는다.
d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배신이라니...
d “난 여태까지 이럴려고 조직을 만들었나..” ~

#Mil8 from 14화. 브랜든과 해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다. 둘이서 추억여행같은 것을 하다가 이상한 낌새가 들었는지 해리가 브랜든을 죽였다.(하지만 대디가 이 사실을 숨겨서 난 알지 못한다.) 다음날, 확 바뀌어버린 회사 분위기에 점점 의심이 가는데..? -물살루트 분기점

#Mil9 배가 갑자기 아파와서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다 며칠 후 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미카 or 띠이름 but 대디가 미카라고해서 미카로결정)

해리가 밀레니온의 보스가 된 후, 대디는 밀레니온에서 은퇴했다.
해리는 이미 밀레니온 전체 지분의 8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그가 대디의 ‘조직 내의 조화’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믿을 것까진 아니더라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리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나와 우리 사이에 곧 태어날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배가 불러오면서 하루하루 걸기가 힘들어졌고, 이젠 대디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게 되었다.
섬세하면서도 다정한 그의 에스코트에, 난 또다시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평상시와는 다른 격통에, 배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대디와 함께 응급실로 자리를 옮겼다.

의사가 진찰하다가 산통이란 진단을 내린 후, 우린 바로 분만실로 자리를 옮겼다.
꼬박 14시간을 내내 산통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대디는 방금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며 황홀한 듯 눈을 떼지 못 했고, 나 역시 아기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d 마리아,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정말 고마워.
m 별말씀을.. 대디가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순조롭게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d 마리아..
m 저를 받아주신 것도, 저를 사랑해주신 것도.. 모두 감사해요. 대디.
d 마리아...
m 지금도, 전 엄청 행복해요.
d 나야말로, 정말 고맙다. 마리아.

눈물을 글썽이며 나의 손을 잡아주는 대디를 보며, 나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나저나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 건지 고민하다가 나의 제안[~이름아무거나 적어넣기~]를 생각해봤는데 대디가 좋은 이름이 떠올랐다면 [미카]로 지어주기로 한다. 나는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산후조리를 한 후, 저택에 돌아와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문득 '내가 브랜든과의 아이를 낳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또 시무룩 하다가 기운차리자! 다짐해서 기운차리고 다시 아이랑 놀아줌 ~

#Mil10 대디가 결국 못참고 해리에게 가서 진상을 캐묻고 해리에게 죽임을 당한다.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분노한다.

요새 밀레니온의 분위기가 매우 흥흥한 것 같다.
당선됐던 회장 후보는 지병으로 사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간부들이 하나둘씩 배신을 한다고 하여 살해당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배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디는 하루종일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지내고 있다.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지만 그의 근심이 너무 깊어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는 것 정도만 가능할 뿐...
그렇게 며칠 후, 다음 회장후보로 유력한 간부들이 모두 처리되자 해리 맥도웰, 그가 기어이 회장의 자리에 앉고 말았다.
그는 이렇 줄 알았다는 듯, 이후의 모든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의 친구인 발라드버드 리, 밥 파운더맥스 역시 그를 회장이란 명칭으로 손쉽게 바꾸고, 회장으로서 그를 대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되자 빅대디는 결국, 그에게 진실 여부를 캐묻기 위해 회장실로 갔다.

~ 빅대디가 회장실로 가서 캐묻는데 해리는 발뺌 / 당연한 절차 취급 - 대디가 브랜든 얘기를 꺼내며 총으로 해리 죽이려 하는데 리가 총권 손 빠버리고 - 해리가 버튼눌러서 떨어진 대디 총으로 대디를 쏘죽이고 ㅂㄷㅂㄷㅂㄷ~

해리는 온몸을 부들부들거리다가,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빅대디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 그대로 빅대디를 연달아 쏘아버렸다.

h 내 앞에서 그 녀석 얘기를 하지 마...!!

대디의 쓰러져가는 모습을 찌러본 그는, 뒤이어 저주라도 하듯 크게 외쳤다.

h 브랜든... 브랜드으은...!!!!!!

h 난 네녀석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릴거야. 네가 떠오르는 모든 저주스런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h 브랜드으으은!!!!!!!!!!

#End) 대디까지 없앤 해리가 해코지를 할까봐 딸 미카를 데리고 은신하지만 결국 해리의 부하들이 집을 찾아내고 딸은 대피시키지만 결국 자기는 죽고만다.

label End

대디의 사망 소식을 접한 나는, 그의 장례식장 앞에서 또 오열을 하고, 저택에서 한동안 나올 수 없었다.

더이상 밀레니온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에, 사퇴의 뜻을 밝히고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그래도 나중에 해리가 무슨 짓을 할 지 모르기에, 대디의 충실했던 부하들 몇을 데리고 밀레니온을 빠져나왔다.

딸 미카가 자라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해리의 눈을 피해 대디의 저택을 청산하고 외딴 산 근처로 이사를 갔다.

내가 거처를 옮겼다는 것은 극비사항으로 취급했으니 해리는 이 집에 대한 건 모를 것이다.

一몇 년 후, 새로 옮긴 거처에서는 평화로운 나날이 유지되고 있었다.

미카는 이제 제법 자라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가 되었고, 마당에서 눈 쌓인 나뭇가지를 건드려 떨어지는 눈을 보며 재밌는듯 웃고 있었다.

그녀를 보며 흐뭇해 하던 도중, 바깥 순찰을 돌던 부하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숨을 헐떡인다. 무슨 일인가 물으니 해리의 부하들이 이 곳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m 역시... 들켜버린 건가.

언젠가 들켜버릴 거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해리의 동료 중, 정보수집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밥 파운더맥스.

그가 있으니 해리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 곳을 알아내는 건 시간문제겠지.

몇 년의 시간을 벌긴 했지만, 이 정도가 한계인가...

생각하고 있을 새도 없이, 곧장 해리의 부하가 경호원들과 전투를 벌이는 총소리가 가깝게 들려온다.

급한대로 집사에게 미카를 맡긴 나는, 집안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총을 집어들고 집에 있던 부하들을 모두 모아 문앞을 대기하고 있었다.

멀리서 날 부르며 울부짖는 미카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애써 외면하며 문 앞만을 응시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급박한 상황에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새가 없다.

이윽고,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고, 해리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난 미카가 도망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다.
하지만, 숫자의 절대적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총에 맞고 말았다.
쓰러지면서 집사와 그녀가 필사적으로 뛰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직 붙잡히지는 않은 모양이다. 다행이다.

총상에서 피가 계속 흘러 바닥에 넓게 퍼져간다.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 브랜든이다.
결국 그와의 좋은 결말은 맞이하지 못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그와 만나보고 싶었다.
그가 밝게 웃으며 날 보고 있다.
여태까지 지은 적이 없는, 지을 리가 없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그가 손을 내밀고 있다.
아... 난 이제 죽는구나.
그래도, 그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아.
나 역시 웃으며 그 손을 잡는다..

label true_end :
(-개발자의 후기- 이런식으로)

아마 그녀는, 브랜든 히트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서 무작정 서있었다는
사실을, 차마 감히 문을 두드려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말로, 그녀가 다가갔어야 하는 기회였다는 것도.
브랜든 히트에게만 모든것을 맡겨 둔 것이 잘못이었다.

누구나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리고, 별 것 아닌 선택이 모두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play sound shotgun.wav

TRUE END

stop sound fadeout 1.0

순간의 선택으로 당신이 후회하는 일이 없길

return

어떻게 대사를 쓰나요?
(실제 게임 개발용 스크립트 예제)

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를 정의합니다.

```
define b = Character('브랜든', color=#625141)
define h = Character('해리', color=#0A2C66)
define m = Character('마리아', color=#FFC300)
```

여기에서부터 게임이 시작합니다.

마리아(주인공, 밀레니온) 브랜든(히로인) 해리(서브남주 씨발것)

#시점: 모두 마리아 기준 시점. 마리아 자기소개, 브랜든 설명해줌, 밀레니온 내 빅대디 저 생활하던 마리아는 브랜든의 근황이 궁금해지는데...

label start:

내 이름은 마리아 아사기, 현재 소속은 밀레니온 —
이 마을에서, 아니 어쩌면 이 국가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그 밀레니온의 보스, 소위 「빅 대디」,
나는 현재 빅 대디의 저택에서 지내고 있다.

...

#BLISS

a. #BLISS 저택으로 이동, 마리아가 브랜든 방으로 들어간다

1. 브랜든이 말 걸
2. 마리아가 말 걸 #truthpoint +1

그동안 내가 브랜든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생각, 감정, 나의 모든 것.

그저 쌓고 쌓아두기만 하고 겉으로 꺼내지 않았던 감정들이 뭉치고 섞여서 결국 활화산처럼 터져버리고야 말았다.

m 그래서.. 그게 뭐...?

내 안에서 갑자기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고, 그것들은 곧 나의 머릿속을 덮어버렸다.

어느새 난 그를 벽으로 밀친 채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그와 밀착해 있었다.

코끝이 달을 듯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향기가, 나를 부추기고 있었다.

b...!?

m 그게 뭐 어쨌는데.

너무 오랜 시간 참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불만을 표출하듯,

지금 이 순간의 애투함이 폭발하여 분출하는 것처럼, 나의 시선엔 열기가 가득 담겨있었고,
그 열기는 오롯이 브랜든만을 향하고 있었다.

웬만해선 절대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브랜든의 얼굴에 무척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에 띄게 동요하는—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나의 감정은 욕정이란 모양새로 변화되었고, 폭발적으로 강해져만 갔다.

그의 당황에 개의치 않고, 걱정을 품은 말은 계속되었다.

m 난 브랜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상관 없어.

m 난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브랜든이 좋아.

b

m 난...

m 나는... 브랜든을 사랑해.

b!!

브랜든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로, 이번엔 돌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서 그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난— 그동안 내 마음 속으로만 삭이던, 절대 내뱉을 수 없다며 조심히 묻어두기만 했던 말을, 이번에는말로 그에게 드러내버린 것이다.

b

(극한 당황, 동공대지진)

m 사랑해, 브랜든.

(매우 진지 엄숙한 표정)

b마리ㅇ....!!

바로 앞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그의 눈동자를 보자, 나의 모든 인내가 증발해버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를 내 앞에 가두었고, 그는 온전히 나에게 속박된 채로 있다.

더이상 그의 어떤 표현도,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난 그의 입술을 덮어버렸다.

갑작스런 키스에 브랜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상기될 정도로 뜨거워졌다.

눈을 감고 그의 얼굴과 턱을 차례로 쓰다듬자,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잠시 입술을 떼고, 빨갛게 상기된 그의 입술을 매만지다가, 아까보다도 더 깊게 입을 맞추었다.

그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다시 입술이 떨어지고, 마리아와 브랜든은 눈을 뜨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m

b

가만히 마주보고만 있던 몇 분 후, 난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 지 알게 되는 데에는 몇 초 걸리지 않았다.

m?!

b

난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나머지, 서둘러 이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그의 눈을 최대한 피하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m어..... 음...

m 일단.... 여기서 나갈까...?.

b ...응.

난 뒤늦게 얼굴이 빨개진 채,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의 브랜든을 데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빅대디가 차를 대기시킨 채로,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d 마리아, 괜찮니..?

m 네.. 저는 괜찮아요.

미소를 띠며 대답하자, 대디는 안심한 듯 보였다.

안에서 있던 일을 대디는 알고 계실까.

만약 었들은 것이 있다면 부디 모른척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m 날도 저물고 했으니 오늘밤은 브랜든을 저택에서 머물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 그동안 브랜든과 못 했던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d 그것이 좋겠구나. 둘 다 차에 타려무나.

b 전...

m!?

브랜든이 도망가려 한다. 난 바로 그를 불러세웠다.

m 브랜든-

b 응.?

m 같이 타자.

b

d?

평상시와 달리 세계 나가는 나의 태도에 빅대디가 놀란 듯 둘을 번갈아 본다.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먼저 차에 탄 후, 옆자리에 브랜든이 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저택에 도착했다.

대디는 브랜든에게 빈 방을 안내해준 뒤, 밤 인사를 하러 나에게 왔다.

d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m 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잘 해결됐어요.

d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m 안녕히 주무세요. 대디.

d 그래, 잘 자렴 마리아.

대디와 인사를 한 후, 난 저녁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m 아무리 생각해도, 맨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은 아닌데...

m 하지만....

난 조심스레 브랜튼과 닿았던 입술을 만져보았다.
또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자 난 브랜튼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보았다.
문 틈새로 본 브랜튼은 아직도 어안이 병병한 지 자지 않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다.
갑작스런 방문에 브랜튼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옆자리를 내주었다.

m 저기...
b
m 저녁 때에는, 미안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m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
b
m ...화 많이 났어..?
b ...아니.
m 그래.. 다행이다.
b

menu:

“브랜튼이 먼저 말을 건다.”
“침묵이 이어지던 도중, 브랜튼이 결심한 듯 나에게 말을 걸었다.”

jump speak_brandon

“마리아가 먼저 말을 건다.”
“길어지는 침묵에 견디지 못 하고, 나는 이만 물러가기로 했다.”

jump speak_maria

label speak_brandon :

b “....마리아.”
m “응?”
b “사실은...”
m “...?”
b “사실은 나도... 마리아를 사랑해.”
m “...뭐...!?”

갑작스런 그의 고백에, 이번엔 내가 굳어버렸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그를 바라보고 있자, 브랜튼은 마주보고 슬픈 미소를 짓더니, 이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b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날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b 하지만 난,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절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난.. 이 손은..
수많은 피로 더럽혀져 있으니까..

b 이런 나는, 널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항상 과묵하기만 했던 브랜든이, 드디어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더듬더듬 하지만 진심을 담아 나에게 전하는 그의 말을 한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그에게 집중하며 경청했다.
그의 손이 점점 떨고 있는 것 같기에, 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내 손이 닿자 그는 순간 흠칫 하는가 싶더니, 이내 나의 손을 꼬옥 맞잡아주었다.

m 괜찮아 브랜든.

b ...!

m 사실, 난 브랜든이 어떤 일을 하는 지 짐작하고 있었어.

b 어..떨게...?

m 후훗— 브랜든, 나도 밀레니온의 패밀리라고?

b 그,그건 알고 있지만..

m 온 회사 안에 소문이 자자하던걸? 그래서 그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지.

b그렇구나.

허를 찔린 듯한 그의 표정에 쫓,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에게 기댔다.
지금 이 순간, 브랜든의 속마음을 직접 들어버린 이상, 난 그에게 어떤 말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전부 해주고 싶었다.

m 전에 말했듯이, 난 브랜든이 어떤 사람이라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브랜든을 사랑할거야.

m 왜냐하면— 브랜든은 사실, 아주 다정하고 나를 언제나 위해주는 사람이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b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이런 나라도...?

m 상관 없어. 정말로.

m 그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밀레니온을 위한 일일 테니까. 그렇지?

b

m 음.. 하지만 이왕이면.. 브랜든의 그 힘, 앞으로는 날 지키는 힘으로 써주지 않을까?

m 생명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가 아닌, 밀레니온을 지키기 위해, 우릴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써주길 바라.

b ...응. 그렇게. 반드시.

m 그리고...

b 응?

m 나도 사랑해. 브랜든

b ...!

m 원래는 듣자마자 바로 답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나?

b 아니, 고마워. 마리아.

m ...응..

b 정말로... 고마워.

날 보여 웃어주는 그의 얼굴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것처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져 고개를 돌렸다가, 그의 부르는 소리에 다시 그를 마주보았다.
이번엔 그가 내 어깨를 살며시 잡더니 내 얼굴로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금방 떨어지려 하자, 난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다시 한 번 입을 맞추었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나서 떨어지자, 난 순식간에 몸이 달아올랐다.
속눈썹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난 브랜든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m 브랜든...

b

m 나... 오늘 밤은 계속 브랜든이랑 같이 있고 싶어..

b 마리아..

m 응? 같이 있자.

유혹하듯이 브랜든은 또다시 당황하는 표정이 되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애달프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그는 결국 저항하기를 포기한 듯 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잠시동안 바라보다가, 또다시 그의 입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계속되는 입맞춤에, 브랜든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가, 그는 이내 못참겠는지 나를 와락 꺼안았다.

나 역시, 심장 박동이 거세지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브랜든을 보는 눈빛은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뜨거워지고, 우리 둘은 서로를 꺼안은 채 동시에 침대 위로 쓰러졌다.

m 브랜든..

b 마리아..

다시 한 번 긴 입맞춤이 이어졌고, 브랜든은 날 안고 있는 자세 그대로, 내 목덜미에 입술을 문었다.

목에 전해지는 그의 입술의 촉감에,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흘러나왔다.

m 으응...

난 순간 너무도 부끄러운 마음에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입술은 내 목에서 쇄골로 조금씩 내려가며 정성스레 키스를 퍼부었다.

입술이 닿은 곳마다 분홍빛 자국이 생겼고, 저릿한 감각이 온 몸을 지배하게 된 나는 그의 등에 매달렸다.

그렇게 그날 밤, 우리들은 밤새도록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다...

다음 날, 브랜든은 저택에 꽃다발을 들고 왔고, 그대로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수줍게 볼을 붉힌 채로, 그의 꽃다발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우리는 대디와 밀레니온 패밀리들의 성대한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show wedding pic

#Bliss Ending Fin.

label speak_maria : #truthpoint +1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이 가지지 않아, 그에게 잠시나마 변명을 해보기로 했다.

m 난 사실, 브랜든이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

b?!

브랜든은 곧바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m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만나지 못 했던 것도.

m 하지만, 난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 설령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브랜든은 나에겐 여전히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인 걸.

b

m 하지만, 이번은 역시.. 좀 심했지...?

b.....

m 그래도.. 다음엔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너무 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b

할 말을 모두 마친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밤인사를 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m 오늘은 정신 없었을 테니, 하룻밤 꼭 쉬어.

b ...응.

m ...난 이만 갈게. 잘 자, 브랜든.

b마리아.

문을 열려다가, 날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섰다.

b 고마워.

m?

b 다 알고도, 넘어가줘서.

b 그리고.. 이런 나를 좋아해 줘서.

m.....

b 잘 자, 마리아.

날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브랜든을 보고, 괜시리 미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간신히 억누르고 그에게 미소로 응답해주었다.

m 응응. 내일 봐.

.....

다음 날 아침, 브랜든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은 후, 난 그를 말없이 배웅해주었다.

그 역시, 오랫동안 날 보고 있다가 차에 탔다.

비록 둘 다 말은 없었지만, 둘 사이의 연결 고리는 더욱더 강하게 이어지는 듯 했다.

jump #GENOCIDE 레이블

#GENOCIDE

label genodice

파멸의 시작.

#장례식을 치르기 전, 염습을 한 뒤의 브랜든을 보고(여기서 그의 왼쪽눈에 있는 총상을 발견) 누군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똑같이 없애리라 다짐. 그리고 미심쩍은 해리가 브랜든을 죽였다고 의심(&확신)을 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마리아

2-2.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브랜든의 복수를 하기 위해 해리 뒤를 캐다가 오그맨 실험 발견, 관련 공부를 시작하는 마리아

~해리가 브랜든을 죽였던 그 건물의 쓰레기장에서 권총을 발견, 발렌티나 호텔때 브랜든이 보였던 그 무기라는 걸 알아채고 ㅂㄷㅂㄷ&오열. 이렇게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그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고자 대디에게 오는 간부들에게 물어 해리 관련 정보를 캐내다가 해리가 매번 거금을 어디에 빼돌리는지 관심을 갖고(돈에 박식한 그가 그렇게 거금을 무언가에 들이는거면 분명 중요할 것이다) 그 정체가 오그맨인 것을 발견, 다음에 몰래 토키오카를 설득,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내고 오그맨 관련 공부 시작~

2-3. 해리가 마리아의 움직임을 수상쩍게 여겨 마리아를 감시 시작. 해리의 감시를 알아채고 조사를 늦추지만 조사는 해리가 한수 위. 마리아가 들킬 위기.

~토키오카랑 공부하기 거의 끝무렵&실험도 지켜봄. 토키오카는 이때부터 해리가 아닌 마리아를 위해 오그맨을 줄 것을 약속(해리는 너무 위험하다- 오그맨도 위험하다- 오그맨도 해리도 서로 공격해서 같이 죽게하자는 식으로), 마리아는 감사를 표함. 근데 해리가 마리아의 행동거지를 수상하게 여겨 마리아 뒷조사하다가 커버치려는 대디를 죽여버림. 아직 이는 모르는 마리아는 그와 만났을때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집안에서 대디의 시체를 본 마리아는 대분노, 연구 및 실험 강행해서 무지 발달시킴, 그의 정보원 밥의 정보 캐내기 하고 그를 따로 만나 해리 관련 조사를 해줄 것을 의뢰하며 먹을것 줌, 밥은 의뢰를 거절하지만 먹을거는 받고 그걸 먹고 죽음~

2-4. 오그맨 연구를 거의 다 마치고, 실행에 옮기기 전 브랜든의 묘를 찾아가서 통곡함

오그맨들의 신체검사가 끝나고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이번엔 가상 훈련을 시켜보았다. 훈련의 성과도 바로바로 향상되고, 조만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 내일, 내일이면 모든 걸 끝낸다.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 난 브랜든의 묘로 향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웬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이끌려온 것이다.

그의 묘 앞에 우두커니 서서, 난 매년 한 것처럼 그의 묘비를 정성스레 쓰다듬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나온다.

m 브랜든...

m

m

m

m

그의 앞에 주저앉아, 또다시 오열을 토해내고 만다.

2-E. 오그맨을 전부 풀어 밀레니온 초토화. 후련하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의 근원인 자신의 연인 브랜든을 떠올리다가 권총자살.

이제 술술 출발할 때가 되었다.

준비 완료 신호가 오자, 난 바로 오그맨 함대를 이끌고 밀레니온 본사로 직행했다.

오그맨 무리를 이끌고 밀레니온 본사 입구로 쳐들어가자, 직원들이 저마다 충격과 경악의 표정을 지었다.

반쯤은 정신이 나간 채 혼비백산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일부는 오그맨에게 대항하다가 붙잡혀 물리고 뜯겨나가 처참한 시체가 되어 나돌았다.

오그맨들과 밀레니온 사원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는 동안, 난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중간 층까지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후부터 난항이 생겼다.

오버 킬즈 멤버의 일원인 듯한 사람이 탄환 몇 방으로 오그맨을 죽인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당해가는 오그맨들을 보며 당황하던 찰나, 그들이 총을 장전할 때, 기존 총알과는 다른 뭔가를 넣는 것이 보였다.

아마 저 탄환 때문에 오그맨이 당한 것 같다.

해리가 그새 어디선가 대 오그맨 탄환을 준비했나 보다.

m 치밀한 자식. 이런 걸 몰래 준비하고 있었나..

m 하지만 상관 없지. 오그맨이 없어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는 있어.

m 왜냐면.... 내 사격 실력은 그에게 배운 것이니까.

~11층부터 20층(혹은 꼭대기층)까지 2~3층씩 건너뛰어서 경호원들과 오버킬즈(강화몹) 죽이면서 꼭대기층 도착, 최후보스는 발라드버드 리(바늘로 수리검 날리는놈)까지 죽이고 나서 해리 보이면 게임클리어~

맨 꼭대기층에 다다르자, 오버 킬즈 멤버 여럿이 회장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꽤 힘들었지만 당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들을 모두 처리하고, 회장실 문을 열어젖혔다.

회장실엔 해리가 앉아있었고, 날 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h 아니, 마리아...! 네가 어떻게 여길..!

m 왜, 내가 이 곳까지 올 수 없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나봐?

h 하... 이거, 정말 놀랍군. 내가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오그맨 사업을 빼돌리고, 그를 이용해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이 마리아였다니.

h 설마, 브랜든 하나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저지른 거야? 정말 대단해. 이걸 보고, 브랜든이 감동해서 무덤에서 울며 기어나오겠는걸?

m

어처구니가 없는 듯 헛웃음을 뱉으며 지껄이는 모양의 해리를 보니, 부아가 치밀었다.

당장에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이유는 알아보고자 그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m 한 가지만 묻지. 그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나?

h 브랜든 말야? 새삼스레 그걸 왜 묻지?

m 얼른 대답이나 해.

h

h 사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그에게 죽었겠지. 나와 그의 이상이 달라지는 순간, 그는 더이상 아군이 아닌, 적인 것이다.

m

h

h 이곳은, 이 밀레니온은, 내가 있어야만 진정한 밀레니온인 것이다!

m 아니. 그가 없이는, 밀레니온도 없어.

대답을 한 직후, 난 그가 브랜든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의 왼쪽 눈에 총을 겨누고, 바로 쏘아버렸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눈을 뜬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제 그를 제거했으니, 밀레니온 건물 안에는 살아있는 간부급 인물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그에게 다가가려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m 귀찮게... 끝까지 의자에 앉아있잖아.

죽어서까지 뻔뻔하게 회장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가증스러웠다.

해리의 시체를 밀어내고, 그 피묻은 의자에 앉아보았다.

이 의자는 해리 맥도웰이 점령하기 전, 대디가 앉았던 의자이기도 하다.

m 나에겐 참 미안한 사람....

m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따위는 하지 않아.

의자에 앉아있으니, 딱찬 후련함과 함께 마음속 어디에선가 허무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상념에 젖어가며 책상을 둘러보다가, 마침 책상에 있는 브랜든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 있는 브랜든은 너무도 해맑은 표정으로 해리 맥도웰과 함께 서있었다.

m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겠지, 브랜든....

사진 속에 있는 브랜든에게 말을 걸며, 입에선 영혼없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m 브랜든... 보고 있니...? 내가 해냈어.

m 너를 죽인 해리 맥도웰에게 복수를 해줬어.

m 거기에서 꼭 보길 바라... 그리고 만족하길 바라.

점점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난 사진 속 브랜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계속했다.

m이 모든 것은 바로 널, 너만을 위해... 내가 직접 계획한 일이니까..

m 네가 없었다면, 난 이런 말도 안되는 행동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메마른 눈에선 또다시 눈물이 흘렀고, 몸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내 관자놀이에 댔다.

그리고, 들리지 않을 고백을, 그에게 말했다.

m사랑해. 브랜든.

그의 눈을 보고 있는 채로, 난 방아쇠를 당겼다.

타앙—

한 발의 총성이 텅 빈 회장실에서 울려퍼졌다.

#GENOCIDE fin.

